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가면?

내가 찾는 병원 정보도 있고!
병원평가정보

내가 먹는 약 정보도 있고!
내가 먹는 약! 한눈에

약끼리 충돌도 막을 수 있고!
DUR(의약품안전사용서비스)

내가 낸 비급여 진료비도 확인할 수 있고!
진료비 확인 서비스

건강을 위한 모든 정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있습니다

건강을 가꾸는 사람들

2018 November+December 11/12 Vol. 167

건강을 가꾸는 사람들

2018 November+December 11/12 Vol. 167

Theme Report 결핵

결핵균에 의한 만성 감염증



만나고 싶었어요
환자와 가족이 소중한 마무리를
준비하는 공간

환자에게 꼭 필요한 정보만
꼭 짚어 가르쳐준다



<연중기획> 심평원을 알려드립니다
환자 중심 의료 재편, 든든한 지원군이 되어 줄 심평원



발길 가는 그곳
정선 만향재에서 평창 대관령까지,
겨울왕국을 가다

Theme Report

결핵



Contents

가꾸는 건강 이야기

04 **Theme Data**
결핵균에 의한 만성 감염증

06 **Theme Clinic**
예방은 모두 다 같이, 결핵 바로 알기

10 **Theme Trend**
국내 결핵 치료의 최근 경향과 정부 정책

12 **Theme Field**
최고의 결핵 치료·예방법은 관심

16 **마음의 소리**
꿈꾸는 사람

바른 건강 이야기

심사·평가정보

- 18 청구 오류 점검서비스
- 20 2019년도 2주기 영양병원 입원급여 적정성 평가 안내
- 22 2019년도(5차) 의료급여 정신과 적정성 평가 안내
- 24 2017년도(2차) 중환자실 적정성 평가 결과 안내
- 26 자동차보험 진료정보 조회 대국민서비스 안내
- 28 응급의료비 대지급 제도 안내
- 30 외국인근로자 등 의료지원사업 안내

31 **〈카툰〉 안녕 심평원**
신포괄수가제 시범사업

행복한 건강 이야기

32 **〈연중기획〉 심평원을 알려드립니다**
환자 중심 의료 재편, 든든한 지원군이 되어 줄 심평원
⑥ 진료비 확인 서비스

36 **〈기획연재〉 보장성 강화 Brief**
‘의료행위 급여기준’ 및 ‘인공와우 건강보험 적용’ 확대

40 **만나고 싶었어요 I**
환자와 가족이 소중한 마무리를 준비하는 공간



44 **만나고 싶었어요 II**
환자에게 꼭 필요한 정보만 콕 찍어 가르쳐준다

46 **발길 가는 그곳**
정선 만항재에서 평강 대관령까지, 겨울왕국을 가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온라인 홍보 채널에서도 다양한 건강정보를 만나실 수 있습니다.

- 「건강을 가꾸는 사람들」 홈페이지: <http://www.hirasabo.or.kr>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블로그: http://blog.naver.com/ok_hira
- 웹진〈건강나래〉: <http://hirawebzine.or.kr>
- 팟캐스트〈장도연, 양세찬의 오케바디〉: <http://www.podbang.com/ch/9584>
- 심평TV: <http://hiratv.or.kr>

- ※ 책자 오른쪽 윗부분에 시각 장애인을 위한 2차원 음성 바코드가 인쇄되어 있습니다.
- ※ 외부필자의 원고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52 **진료 상식 정보**
전문병원 알아보기

53 **음식의 속내**
건강기능식품의 기능성, 어디까지 믿어야 하나?

54 **마음 연구소**
게으른 ‘나’에서 부지런한 ‘나’로!



56 **HIRA News**

60 **독자의 소리**

건강을 가꾸는 사람들

2018 11/12

Vol. 167

발행일 2018년 11월 20일
통권 제167호
발행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주소 강원도 원주시 혁신로 60(반곡동)
발행인 김승택
편집인 송문홍
기획·디자인 유니크플러스
인쇄 한국장애인단체 총연합회 인쇄사업소
고객센터 1644-2000 / 033-739-033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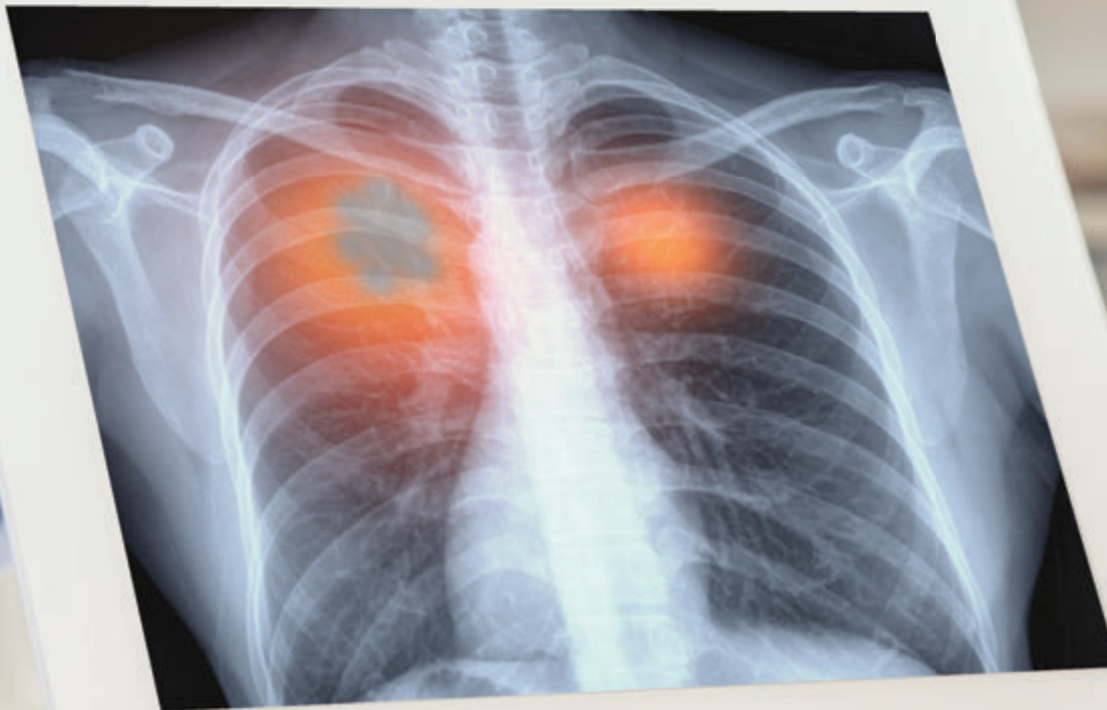
결핵균에 의한 만성 감염증

HIRA 보건 의료빅데이터

국민관심질병통계(2017년)

#6. 결핵

결핵은 과거 질병으로 취급되곤 하지만, 사실 현재도 주요 사망 원인으로 꼽힌다. WHO에 따르면 2017년 세계 각국의 결핵으로 인한 사망자 수는 160만 명에 이른다. 여전히 중요한 공중보건상의 문제로 자리 잡고 있다. 우리나라 역시 결핵 발생률을 낮추고자 지난 8월 '제2기 결핵관리 종합계획'을 발표하기도 했다. 보건 의료빅데이터를 통해 결핵의 현재를 확인한다.



남성 50대, 여성 80세 이상

성별·연령별 내원일수가 가장 많은 연령대는 남성은 50대(9만 8,995일), 여성은 80세 이상(12만 9,483일)이다.



36만 5,016일



요양기관그룹별 내원일수는 종합병원이 36만 5,016일로 가장 많고, 병원급 24만 4,843일, 상급종합병원 23만 3,052일, 의원급 2만 9,112일, 보건기관 등 3,709일 순으로 많다.

80세 이상 24.2%

연령별 요양급여비용총액 비율은 80세 이상이 24.2%(339억 8,814만 원)로 가장 높고, 70대 22.6%(318억 1,228만 원), 50대 14.7%(206억 2,415만 원), 60대 14.4%(202억 5,088만 원) 순서로 높다.



서울 335억 9,364만 원

요양기관소재지별 요양급여비용총액은 서울 335억 9,364만 원, 경기도 228억 7,641만 원 순으로 높고 가장 낮은 지역은 세종 927만 원으로 집계됐다.



7만 2,169명

결핵 환자 수는 7만 2,169명으로 그중 남성이 4만 1,402명, 여성이 3만 767명이다. 결핵 환자 수는 2013년 9만 6,962명, 2014년 9만 984명, 2015년 8만 6,122명, 2016년 8만 1,066명이다.



서울 19만 5,059일

요양기관소재지별 내원일수는 서울 19만 5,059일, 경기도 14만 8,746일 순서로 높고 가장 낮은 지역은 세종 246일로 집계됐다.

총 87만 5,732일

입원-외래별 내원일수는 외래 37만 7,066일, 입원 49만 8,666일이다.



1,405억 6,773만 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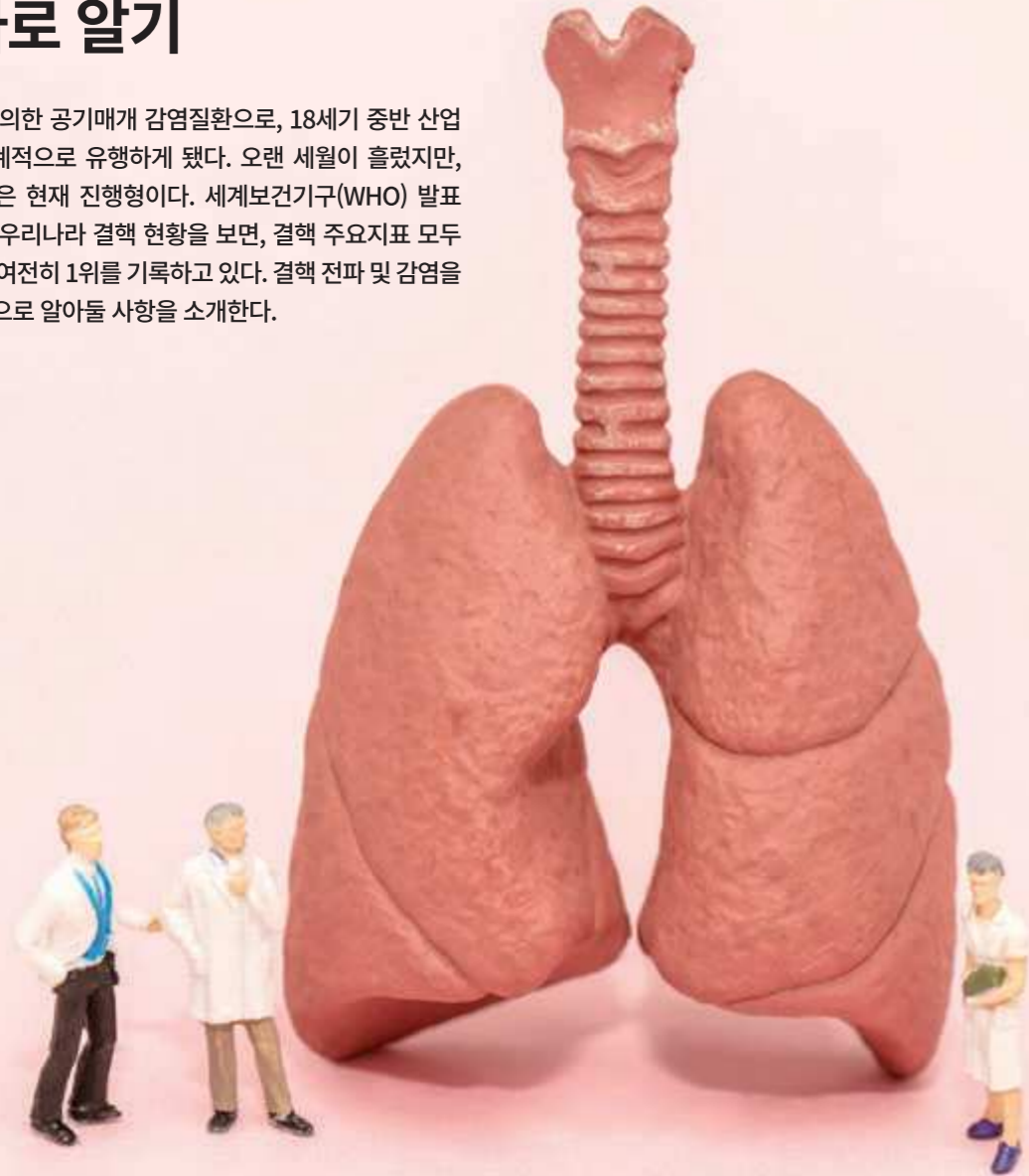
건강보험으로 청구된 입원-외래별 요양급여비용총액은 1,405억 6,773만 원으로 그중 외래 258억 2,947만 원, 입원 1,147억 3,826만 원이다.





예방은 모두 다 같이, 결핵 바로 알기

결핵은 결핵균에 의한 공기매개 감염질환으로, 18세기 중반 산업 혁명 이후 전 세계적으로 유행하게 됐다. 오랜 세월이 흘렀지만, 우리나라의 결핵은 현재 진행형이다. 세계보건기구(WHO) 발표 국제통계에 의한 우리나라 결핵 현황을 보면, 결핵 주요지표 모두 OECD 가입국 중 여전히 1위를 기록하고 있다. 결핵 전파 및 감염을 예방하고자 기본으로 알아둘 사항을 소개한다.



결핵의 증상

결핵 초기에는 증상이 없는 경우도 많아서 건강검진 흉부 X선 이상소견으로 진단되기도 한다. 시간이 지나며 다양한 증상이 발생할 수 있는데, 가장 흔한 증상은 기침이며, 발열, 체중 감소, 야간발한, 식욕부진 등과 같은 전신 증상이 동반될 수 있다. 결핵은 기침과 가래 등 감기와 유사한 증상을 동반하기 때문에 감기로 오인하여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해 증상이 심각해지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조기 발견과 치료가 중요하다.

결핵 검사

뚜렷한 원인 없이 2~3주 이상 호흡기 증상이 지속되면 병원을 방문하여 결핵 검사를 시행해야 한다. 결핵균 배양 검사의 경우 많은 시간이 소요되기에 임상 소견과 방사선 소견, 그리고 여러 가지 검사 방법들을 종합하여 진단하게 된다. 호흡기 증상으로 내원한 환자의 임상 소견상 폐결핵이 의심되면 먼저 흉부 X선 검사와 객담 항산균 도말 및 배양 검사 그리고 결핵균 핵산 증폭 검사를 시행하고 그 결과에 따라 다음과 같이 폐결핵을 진단한다.

결핵이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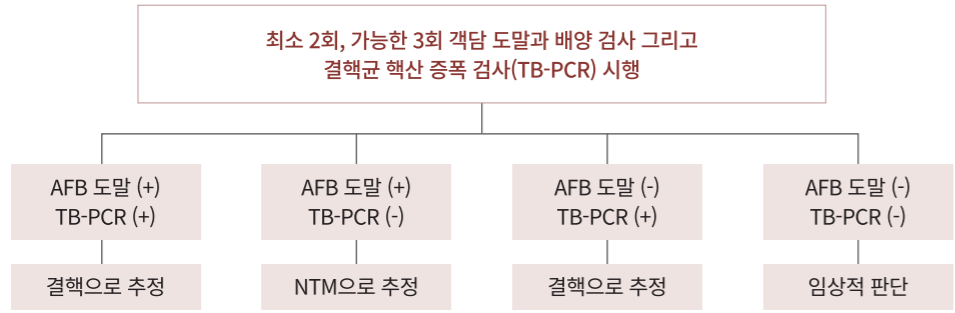
결핵은 결핵균 복합체(Mycobacterium tuberculosis complex)에 속하는 세균에 의해 발생한다. 결핵균은 다른 세균들과 달리 사람의 몸속에서만 살 수 있기 때문에 결핵 환자만 결핵균을 감염시킬 수 있다. 결핵균은 주로 폐에 침범하여 폐결핵을 일으키지만, 폐 외의 장기에 침범하여 감염을 일으킬 수 있다. 발생 위치에 따라 림프절결핵, 척추결핵, 장결핵 등도 있는데 이러한 결핵은 타인에게 전염되지 않는다.

결핵 전파

결핵균의 전파는 주로 전염성 폐결핵 환자의 비말핵(결핵균이 포함된 미세한 침방울)이 공기를 통해 다른 사람의 호흡기로 흡입되며 일어난다. 하지만, 전염성 폐결핵 환자와 같은 공간에 있었다고 모두 결핵에 감염되는 것은 아닌데, 이는 접촉의 정도와 기간, 환자의 전염력 등에 영향을 받기 때문이다. 흔히들 환자와 함께 밥을 먹거나 물건을 같이 쓰면 전염된다고 생각하는데, 일반적인 전염병과 달리 결핵은 개인 위생 상태와 상관없다. 결핵 환자가 사용한 수건, 식기류, 음식 등을 통해서도 전염되지 않는다. 때문에 결핵 환자와 물건을 함께 써도 무방하다.

“ 임의로 복용을 중단하면 죽지 않은 결핵균이 재발하여 다제내성 결핵으로 갈 가능성이 크다. 다제내성 결핵일 경우 치료 기간이 18~24개월에 이르고 치료 성공률도 50~60% 정도에 불과하기 때문에 초기에 치료를 끝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

08



폐결핵의 진단 과정. TB-PCR = M. tuberculosis-polymerase chain reaction.
AFB= acid-fast bacilli. NTM = nontuberculous mycobacteria.

결핵 치료

약 복용이 결핵의 유일한 치료법이다. 수술적 치료는 일부에게만 필요하다. 결핵균은 매우 서서히 자라고 일부는 간헐적으로 증식하기 때문에 이따금 증식하는 결핵균까지 살균하기 위해서는 6개월 이상 장기간의 치료가 필요하다. 그리고 증상이 호전됐다고 완치된 것으로 판단하여 약 복용을 중단하는 사례가 많은데 임의로 복용을 중단하면 죽지 않은 결핵균이 재발하여 다제내성 결핵으로 갈 가능성이 크다. 다제내성 결핵일 경우 치료 기간이 18~24개월에 이르고 치료 성공률도 50~60% 정도에 불과하기 때문에 초기에 치료를 끝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폐결핵은 법정3군 감염병으로 공기감염을 통해 주위 사람들에게 감염시킬 수 있기 때문에 치료 초기에는 직장에 출근하면 안 된다. 하지만 결핵 치료를 시작한 초치료 폐결핵 환자의 경우 급격히 감염성이 떨어지므로 보통 2주 이상 결핵약을 복용하면 직장이나 학교에 복귀하여 일반인과 생활해도 된다.

결핵 예방

가장 기본적인 결핵 예방법은 전염성 환자를 조기에 발견하여 격리하고 적절히 치료하여 완치시키는 것이다. 결핵 환자는 감염성이 있을 동안 마스크를 착용하여 결핵균의 공기 배출을 최소화시켜 주위 사람들이 결핵균에 감염되는 것을 방지해야 한다.

결핵 예방을 위해서는 기침·재채기를 할 때 휴지나 손수건 또는 옷소매 위쪽으로 가려야 하며 기침이 계속될 때는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결핵은 면역이 약한 사람에게 잘 발생하므로 금연과 충분한 영양 섭취를 하고, 스트레스를 피하는 것이 중요하다. 부가적인 방법으로는 비씨티(BCG) 접종과 잠복결핵 치료가 있다.



비씨지는 우형결핵균을 약화시켜 개발된 백신으로 신생아 시기에 맞으면 결핵균에 대한 면역세포가 체내에 형성되어 있다가 나중에 결핵균이 들어오면 결핵균을 제거한다. 1950년대부터 지금까지 결핵 예방을 위해 널리 사용되고 있지만 비씨지 백신의 결핵 예방 효과는 소아 시기에는 크나 나이가 들수록 감소한다. 그러므로 비씨지 접종을 받아도 결핵에 걸릴 수 있다.

잠복결핵감염 관리

결핵균에 감염되어 소수의 살아있는 균이 체내에 존재하나 임상적으로 결핵 증상이 없고 균이 외부로 배출되지 않아 타인에게 전파되지 않으며, 흉부 X선 검사에서 정상인 경우를 잠복결핵감염으로 정의한다. 전염성 결핵 환자 접촉자뿐만 아니라, 결핵 발병 고위험군은 잠복결핵감염 진단을 받게 되면 아래의 경우 잠복결핵 치료를 받아야 한다.

- 1 HIV 감염인
- 2 장기 이식으로 면역억제제를 복용 중이거나 복용 예정자
- 3 TNF 길항제 사용자 혹은 사용 예정자
- 4 흉부 X선상 과거 결핵치료력 없이 자연 치유된 결핵병변이 있는 경우
- 5 모든 연령에서 최근 2년 내 감염이 확인된 경우

마치는 말

결핵균은 일정 기간 정해진 잠복 기간이 없어 집단시설에서 결핵 환자가 발생하였을 때 언제 어디서 어떤 경로로 결핵균에 노출되었는지 확인할 수 없다. 실제로 결핵 역학조사를 통해 다수의 환자가 확인되었으나 누가 감염원의 역할을 했는지 알 수 없는 경우도 있다. 결핵은 누구나 발생할 수 있는 질환이므로 결핵 환자를 평소처럼 대해주고 따뜻하게 감싸줄 수 있는 아량이 필요하다.

결핵 예방 수칙 5가지

<p>1</p> <p>금연, 꾸준한 운동과 균형 있는 영양 섭취</p>	<p>2</p> <p>2주 이상 기침·가래가 지속되면 의료기관 방문</p>	<p>3</p> <p>결핵 환자와 접촉 시 증상 여부와 상관없이 검사 필요</p>	<p>4</p> <p>평소 기침이나 재채기를 할 때 손이 아닌 휴지나 옷소매 위쪽으로 입과 코를 가리기</p>	<p>5</p> <p>기침이나 재채기 후 흐르는 물에 비누로 30초 이상 손 씻기</p>
---	---	---	---	---

09

국내 결핵 치료의 최근 경향과 정부 정책

결핵은 아직도 세계적으로 높은 유병률과 사망률을 보이는 전염병으로 전 세계 보건 의학 분야에서 중요한 질병이다. 결핵 퇴치를 위해서는 건강한 생활양식, 진단기술, 치료 약, 백신 개발, 정부 지원이 필수다. 최근 결핵 관련 연구와 정책이 어떻게 이뤄지는지 살펴본다.

결핵 환자 신고현황으로 본 국내 결핵 환자 추이

2017년 결핵 환자 신고현황(질병관리본부, 2018)에 의하면 2017년 기준, 국내 전체 결핵 환자는 3만 6,044명(10만 명당 70명)이고 국내 결핵 신(新)환자는 2만 8,161명(10만 명당 55명)이었다. 2016년 기준, 국내 결핵 사망자 수는 2,186명으로 그중 남성은 1,349명, 여성 837명으로 남성이 여성에 비해 1.6배가량 많으며, 전체 결핵 사망자 중 70대(546명, 25%)와 80대 이상(1,120명, 51%)의 비중이 높다.

다제내성 결핵이라 함은 가장 중요한 항결핵약제인 이소니아지드(isoniazid)와 리팜핀(rifampicin)에 내성인 결핵을 의미하는데, 2017년 결핵 환자 신고현황(질병관리본부, 2018)에 의하면 2017년 689명이었고 다제내성 결핵이면서 플루오로퀴놀론(Fluoroquinolone) 약제 중 한 가지 이상의 약제와 세 가지 주사제(Capreomycin, Kanamycin, Amikacin) 중 한 가지 이상의 약제에 내성을 보이는 광범위 약제내성 결핵(Extensively drug-resistant tuberculosis, XDR-TB)은 2017년 55명이었다.

다제내성 결핵으로 진단될 경우, 치료제의 선정이 까다롭고 치료 기간이 18~24개월에 달하여 약물로 인한 안전성 및 부작용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으며, 치료 비용 면에서도 많은 부담이 된다. 한편 국내 다제내성 결핵 치료 성공률은 2015년 54.1%에서 2016년 64.3%로 획기적으로 증가하였

으나, 선진국의 70~80%대 치료 성공률에 비하면 여전히 낮은 수준이다.

새롭게 개발되고 있는 치료제

지난 50년 동안 새로운 결핵 치료제의 개발은 거의 이뤄지지 않았으며, 때문에 새로운 치료제의 공급이 절실히 요구되어 왔다. 최근에 와서야 새로운 약물들이 개발되고 있으며 임상 단계에서 연구되고 있다. 2014년 서튜러정을 시작으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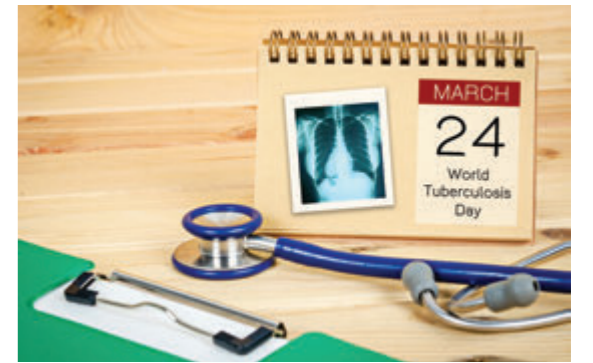


델티바정이 결핵 치료에 사용하는 신약으로 허가되어 결핵 치료 병합요법의 변화를 가져오고 있다. 2018년 9월 WHO에서는 퀴놀론계 항생제, 신약(서튜러 또는 델티바) 그리고 옥사졸리디논계 항생제의 3가지 약물이 결핵 치료의 병합요법에 있어 중요한 기본 조합이 될 것으로 예상했다. 특히 다제내성 결핵 치료에 있어서 옥사졸리디논계 항생제는 병합요법의 치료 성공률을 높이는 데 기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최근 국내 한 제약회사는 차세대 옥사졸리디논계 항생제 신약을 개발하고 있다. 약 163명의 국내 건강인을 대상으로 한 다양한 1상 임상시험에서 최대 투여 허용량은 1일 2,400mg이었고 7일에서 21일간 반복적 투여 시에도 약물이 몸에 지속적으로 쌓여 약물의 농도를 갑자기 증가시킴으로 나타나는 축적작용이 없었다. 또한 골수 억제나 말초 신경증의 이상 반응 및 심전도의 이상도 나타나지 않았으며 음식물에도 영향을 덜 받는 것으로 뛰어난 안전성을 입증하였다. 2016년 10월부터 현재 서울아산병원, 성모계열병원 그리고 강동경희대병원을 비롯해 국내 16개 종합병원이 참여하여 객담 항산균 도말 양성 활동성 폐결핵 환자를 대상으로 초기 살균력과 안전성을 탐색하기 위한 임상2a상 시험 중에 있다. 2019년에는 다제내성 결핵 환자를 대상으로 임상2b상을 국내 및 해외에서 진행할 예정이며 2023년 허가 신청을 계획하고 있다.

결핵 사전심사제도와 나아갈 방향

정부는 다제내성 결핵 환자의 치료율을 제고하기 위해 2007년부터 치료비 전액을 국가에서 부담하고 있으며, 2010년부터는 치료 비순응 환자 관리 및 입원, 격리 조치 도입, 신약의 적극적 도입 등으로 치료율 제고에 힘쓰고 있다. 다제내성 결핵 신약인 서튜러정과 델티바정은 각각 2015년 5월과 2015년 11월에 별도의 급여 기준 없이 신약으로 등재되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사항 내 사용 시 보험급여를 실시하게 되었는데, 약제의 허가사항에 대한 해석 차이로 보건복지부 및 질병관리본부는 2016년 9월에 다제내성 결핵 신약 사전심사제를 도입했다. 다제내성 폐결핵 환자를 진료한 주치의가 다제내성 결핵 치료 신약 처방이 필요하다고 판단



하여 사용 전 심사를 요청하는 경우, 결핵 전문가로 구성된 질병관리본부 심사위원회의 사전심사를 거쳐 급여 인정 여부를 결정하게 되었다. 그러나 급여 결정 기간이 길어 치료가 지연되는 등의 문제로 2017년 5월부터는 제도를 개선하여 질병관리본부 사전심사위원회의 심사만으로 급여를 결정하게 되는 제2기 사전심사제를 운영하고 있다.

한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결핵 진료 질 향상을 도모하고 효과적인 국가결핵관리 정책 수립을 지원하고자 결핵 적정성 평가를 실시하고 있다. 2019년 하반기, 1차 평가 결과를 공개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정부는 '제2기 결핵관리종합계획(2018~2022)'을 마련해 '결핵 없는 사회, 건강한 국가'를 비전으로 결핵 발생률을 낮추기 위해 5년간 중점적으로 추진할 대책을 4개 분야별로 제시했다. ①조기 발견을 통한 전파 차단. ②환자 중심의 관리와 지지. ③연구개발 및 진단. ④국내외 협력체계 구축. 이러한 대책 추진을 통해 2022년까지 결핵 발생률(WHO 통계)을 현재(2016년, 10만 명당 77명)의 절반 수준(2022년, 10만 명당 40명)으로 낮추는 것을 목표로 하며, 나아가 2035년에는 결핵 퇴치 수준(10만 명당 10명 이하)까지 감소시키겠다는 계획이다.



최고의 결핵 치료·예방법은 관심

결핵안심국가사업 우수기관, 세종시 보건소

우리나라는 OECD 가입 국가 중 결핵 발병률 1위를 달리고 있다. 결핵 후진국이라는 자조 섞인 평가가 딱 들어맞는 근거다. 이에 정부는 지난 2016년부터 ‘결핵안심국가계획’을 시행하고 있다. 올해 ‘결핵안심국가사업 우수기관’에 선정된 세종시 보건소가 말하는 최고의 결핵 치료 및 예방법을 공유한다.

결핵에 대한 오해와 진실

흔히 결핵은 ‘가난병’으로 불린다. 이는 과거 영양이 부족하고 생활환경이 열악한 이들이 주로 걸렸다는 ‘잘못된 인식’에서 비롯된 오해다.

국제백신연구소에 따르면 전 세계 인구의 30%에 해당하는 20억 명 이상이 결핵균에 감염돼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여기서 끝이 아니다. 결핵의 무서움은 치사율에서 확인할 수 있다. 결핵으로 인한 한해 사망자는 180만 명 이상으로 에볼라, 말라리아, 에이즈 등 다른 감염성 질환보다 월등히 높은 수치다. 감염성 질환 중 단연 첫손가락에 꼽힌다. 공기로 전염이 가능하다는 점 또한 결핵의 무서운 특징 중 하나다. 하지만 우리나라 국민들은 결핵에 대한 경각심이 매우 부족한 편이다. 앞서 제시한 OECD 국가 결핵 발병률 1위라는 사실 역시 이와 같은 맥락이다.

지난 2016년 발표한 질병관리본부의 결핵안심국가 실행계획은 정부의 결핵 극복 의지에 대한 방증이라고 할 수 있다. 다시 말하면 결핵은 국가 차원에서 관리해야 할 만큼 위험한 질병이라는 의미다.

지역 주민의 ‘실질적 건강 증진’ 도모

대한민국 행정의 새로운 중심, 세종시 주민들의 건강을 책임지고 있는 세종시 보건소는 올해 ‘결핵안심국가사업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유한솔 감염병관리팀 주무관은 “결핵은 지속적인 관심과 관리가 병행돼야 하는 질병이다”라며 “일단 결핵이 발병하면 치료가 어려운 만큼 사전 예방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 주무관의 말처럼 결핵안심국가 실행계획의 핵심은 ‘예방’이다. 좀 더 자세히 설명하면 우리나라 국민 중 40%가 보유하고 있는 ‘잠복결핵’을 사전에 치료하는 것이다.

유 주무관은 “지금 당장 발병하지는 않았지만 언제든 터질 수 있는 소위 ‘시한폭탄’이 바로 잠복결핵이다”라며 “잠복결핵 치료의 경우 발병 후 치료와 비교해 기간이나 복용하는 약의 종류와 수가 절반 이하인 만큼 사전 예방에 대한 인식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잠복결핵 치료에는 약 3개월이 소모된다. 물론 짧지 않은 시간이다. 하지만 치료를 마치면 잠복결핵의 발병률은 10% 이하로 낮아진다. 쉽게 말해 10명 중 1명꼴로 잠복결핵이 실제 발병으로 이어지는 것이다.





유 주무관은 “현재 개발된 백신으로 100% 완벽한 예방은 불가능하다. 하지만 몇몇 변종결핵이나 이른바 슈퍼결핵과 같은 일부 특수결핵을 제외하고는 높은 예방 효과를 기대할 수 있기 때문에 치료를 받는 게 좋다”고 말했다.

세종시 보건소는 지난 한 해 동안 지역 내 잠복결핵 주민에 대한 집중적인 검사와 치료를 병행했다. 특히 면역력이 취약한 아동 관련 기관과 의료기관 종사자를 중심으로 잠복결핵감염 양성자 확인에 주력했다. 그 결과 어린이집과 유치원을 비롯해 사회복지시설, 의료기관 종사자 2,631명에 대한 검사로 약 400명의 신규 양성자를 찾아냈고, 이 중 60%가량을 치료했다. 50%를 밀도는 다른 지자체에 비해 단연 눈에 띄는 성과다.

유 주무관은 “현재 잠복결핵은 치료의 강제성이 없다”라며 “과정이 힘든 것은 사실이지만, 내 가족 내 이웃의 건강을 위해 치료에 적극적으로 나서길 바란다”고 전했다.

결핵은 그 어떤 질병보다 관심과 예방이 중요하다. 2주 이상 기침과 가래 증상이 계속된다면 반드시 보건소를 찾아가 관련 검사를 받아야 한다. 한발 더 나아가 잠복결핵 검사와 치료를 받는다면 잠재적 위험을 상당 부분 견어낼 수 있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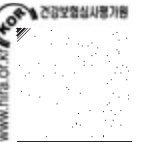
의료사각지대에 놓인 주민 적극 찾아가자

지속적인 관심과 관찰이 중요한 결핵의 특성상 개인적인 상황 탓에 의도치 않게 의료취약지대에 놓인 경우가 제법 많다. 외국인 근로자, 가출 청소년, 알코올의존증 환자 등이 대표적이다. 하지만 외부의 적극적인 도움 없이 환자 본인이 자의로 의료기관을 찾는 일은 극히 드물다. 지역 의료의 선봉장인 보건소의 역할이 중요한 이유다.

유 주무관은 “물론 보건소 차원에서 결핵을 비롯한 각종 질병의 치료를 유도하는 캠페인을 벌이고 있지만 일부 주민들은 이를 제대로 접하지 못한다”라며 “지역 내 사회복지기관 및 의료기관, 여타 관련 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의료취약지대에 놓인 주민들을 발굴하고자 적극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현재 세종시 보건소는 한 알코올의존증 환자의 결핵 치료를 진행하고 있다. 유 주무관을 비롯해 감염병관리팀원들이 직접 환자를 찾아가 끈질기게 치료를 권유한 끝에 보건소를 찾은 것이다.



“아직도 결핵이 과거 어려운 시대와 함께 흘러간 병이라고 생각하는가? 언젠든 발생할 수 있는 잠재적 시한폭탄을 끌어안고 싶지 않다면 지금 당장 집 앞 보건소를 찾아가자”



유 주무관은 “앞으로도 기존의 결핵 관련 사업을 꾸준히 진행하는 동시에 의료취약지대에 놓인 주민들과의 직접적인 소통을 강화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이외에도 세종시 보건소는 산간지역이나 교통 취약지대를 중심으로 ‘결핵 이동검진버스’를 운영하고 있다. 이동이 어려운 고령의 주민들을 위한 ‘찾아가는 의료서비스’인 셈이다. 의료 환경 개선과 지역 주민 건강증진을 목표로 지자체 차원에서 보건환경연구소 설립을 추진하고 있는 것 또한 주목해야 할 행보다.

유 주무관은 “세종시의 내외부가 성장을 거듭하는 상황에서 우리 보건소의 역할 역시 중요해짐에 따라 지역 주민들의 실질적 건강 증진을 위한 다각적인 정책이 수립·시행되고 있다”라며 세종시 보건소의 긍정적인 변화를 약속했다.

현재 세종시 보건소를 비롯한 전국 모든 보건소의 결핵 관련 검사와 치료가 무료이다. 본인의 의지만 있다면 얼마든지 사전

예방과 치료가 가능하다는 의미다.

송정희 감염병관리팀장은 “우리들 사이에서는 ‘보건소만 잘 이용해도 모든 질병을 90%는 예방할 수 있다’는 말을 한다”라며 “보건소의 문턱은 아예 존재하지도 않으니 언젠든 편하게 방문하길 바란다”는 당부를 전했다.

아직도 결핵이 과거 어려운 시대와 함께 흘러간 병이라고 생각하는가? 언젠든 발생할 수 있는 잠재적 시한폭탄을 끌어안고 싶지 않다면 지금 당장 집 앞 보건소를 찾아가자. 자신이 지금 누리고 있는 건강한 일상을 유지하는 것은 본인 스스로의 결심에 달렸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

꿈꾸는 사람

희망은 잠자고 있지 않은 인간의 꿈이다.
인간의 꿈이 있는 한
이 세상은 도전해 볼 만하다.
꿈은 희망을 버리지 않는 사람에게
선물로 주어진다.

- 아리스토텔레스

청구오류 점검서비스



진료비 청구오류 점검서비스란?

- 요양기관에서 진료비를 청구하기 전에 청구서·명세서의 필수 기재사항을 점검하고 누락·착오 등의 청구오류를 수정·보완하여 정확하게 청구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 청구오류 점검서비스는 진료비 청구 전·후 2단계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 (사전점검서비스) 청구 전에 요양기관이 청구오류를 자가 점검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수정보완서비스) 청구 후 2일 이내 단순 오류를 수정·보완토록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청구오류 점검서비스 이용 편의

- 청구오류로 인한 청구서·명세서 반송, 심사불능, 심사조정을 방지함으로써 보완청구 및 이의 신청 등의 업무 가중과 행정적 부담을 덜어 드릴뿐만 아니라 진료비를 적기에 수령할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2017년 청구오류 예방 실적

(단위: 천 건, 억 원)

구분	점검항목	건수		금액	
		발생	예방	발생	예방
계	924항목	3,098	1,843	3,327	2,962
사전점검서비스	873항목	2,052	1,576	2,834	2,730
수정보완서비스	51항목	1,046	267	493	232

- 또한, 청구오류 점검서비스를 이용하는 기관에는 청구오류 발생 유형 및 분석자료 등 청구 업무에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청구오류 (사전점검서비스) 이용방법

- 청구 전에 요양기관 진료비청구 PC에 설치된 우리원 제공 「진료비청구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청구오류를 점검할 수 있습니다.

진료비청구 프로그램 화면



* 진료비청구프로그램 다운 경로
- 요양기관 업무포털(<http://biz.hira.or.kr>) 하단 배너

청구오류 사전점검서비스 이용방법



- 점검 결과는 「요양기관 업무포털(<http://biz.hira.or.kr>/진료비청구/청구오류사전점검)」 화면에서 청구서·명세서별로 상세히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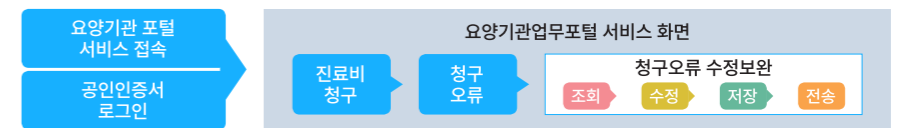
청구오류 (수정보완서비스) 이용방법

- 청구 후에 누락·착오 등 오류가 있으면 해당 사항을 안내해 드리며, 2일 이내에 아래의 방법에 따라 수정·보완할 수 있습니다.

요양기관 포털서비스 화면



청구 후 오류 사항 수정·보완 방법



청구오류 예방 맞춤형 정보제공

- 이용기관별 청구오류 다발생 항목 및 분석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맞춤형 정보제공 화면



맞춤형 정보 이용 방법



2019년도 2주기 영양병원 입원급여 적정성 평가 안내



평가 배경

- 「요양병원 입원급여 적정성 평가」(이하 요양병원 평가)는 요양병원 입원수가(일당정액제) 신설로 인한 의료 서비스의 과소 제공을 방지하고 요양병원 전반의 구조적인 인프라를 적정 수준으로 견인하고자 2008년부터 도입되었습니다.
- 이후 10년 간 평가결과 (현재 7차 진행 중), 의료 서비스의 질적 수준이 꾸준히 향상되었고 요양병원 간 편차도 감소하는 추세가 확인되었습니다.
- 이에, 요양병원 평가의 지속가능성과 효율화 방안 마련을 위해 2017년 「요양병원 입원급여 적정성 평가 개선방안 연구」를 추진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2주기 요양병원 평가」를 새롭게 실시하고자 합니다.

평가 목적

- 2주기 평가는 진료영역 중심의 의료서비스 질 관리를 통해 입원환자의 건강을 보호하고 요양병원이 자율적으로 의료의 질을 개선할 수 있도록 운영하고자 합니다.

평가 개요

평가 개편 방향

- 요양병원의 진료 기능 강화: 진료 중심으로 평가 기준 재구성
- 평가 방향성 및 예측 가능성 확보: 지표별 가중치 사전 공개
- 국민의 병원 정보 알 권리 신장: 평가 결과의 1년 단위 공개

• 평가 대상

대상 기간	2019년 1월~3월 (3개월 ^{주1)} 건강보험, 의료급여, 보훈 입원진료분
대상 기관	요양병원 일당 정액 수가를 청구하는 모든 요양병원 ^{주2)} (단, 호스피스 시범사업 대상 건 제외)

주1) 2020년부터 6개월로 기간 확대 예정임
주2) 「의료법」 제3조에 따라 정신병원 및 의료재활시설 제외

• 평가 기준(평가지표)

- 평가는 1주기 37개 지표를 정비하여 핵심지표 총 18개 지표(최소 의료인력지표 4개, 진료 지표 11개, 모니터링 지표 3개)를 기준으로 진행합니다.

구분	지표명	가중치(점)		
구조 영역 (4)	구조 영역 소개		30	
	의사 1인당 환자 수	균등 분할		
	간호사 1인당 환자 수			
	간호 인력 1인당 환자 수			
	약사 재직일수율			
진료 영역 (11)	진료 영역 소개		70	
	과정 (4)	진료 과정 지표 소개		20
		65세 이상 노인 중 입원 시 MMSE 검사 실시 환자분율	균등 분할	
		당뇨병 환자 중 HbA1c 검사 실시 환자분율		
		유치도노관이 있는 환자분율		
	요실금이 있는 환자 중 배뇨 훈련을 받고 있는 환자분율			
	결과 (7)	진료 결과 지표 소개		50
		전월 비교 5% 이상 체중감소 환자분율	6	
		욕창이 새로 생긴 환자분율	12	
		욕창 개선 환자분율	10	
		중등도 이상의 통증 개선 환자분율	10	
일상생활수행능력 (ADL) 개선 환자분율		7		
일상생활수행능력 (ADL) 유지 환자분율		3		
장기입원(181일 이상) 환자분율	2			
모니터링	유치도노관 관련 요로감염률	모니터링 지표는 가중치 없음		
	의약품안전사용서비스(DUR) 점검률			
	지역사회 복귀율			

• 평가 자료 및 평가 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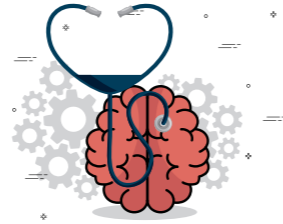
- 평가 자료는 요양기관 현황 자료, 요양병원 차등제 신고 자료, 요양급여비용 청구명세서 및 환자평가표, 행정안전부 사망 자료를 활용합니다.
- 평가는 기관별 종합점수를 기준으로 기관별 평가등급을 부여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기관별 종합점수'는 평가지표별로 표준화 과정을 거쳐, 지표별 가중치를 반영한 후 기관별로 산출됩니다.

평가 결과 활용(2020년 6월 공개 예정)

- 결과는 국민이 의료이용정보로 활용할 수 있도록 우리 원 홈페이지에 공개합니다. 또한 요양병원별로 평가 결과와 비교 정보를 제공하고 개선이 필요한 경우 요양기관 대상으로 질 향상 지원을 합니다.

요양병원 평가 세부 계획은 「우리 원 홈페이지(<http://www.hira.or.kr>) > 알림 > 공지사항」에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19년도(5차) 의료급여 정신과 적정성 평가 안내



평가 배경

- 의료급여 정신과 입원수가는 일당정액제로 2008년 의료인력 등 인력 확보수준에 따른 수가차등제를 실시하였습니다.
- 이에, 의료급여 정신과 적정성 평가는 일당정액제 실시로 인한 의료 서비스의 과소제공 방지 및 의료서비스 질의 적정성을 확보하고자 2009년부터 2016년까지 4차례 평가를 시행하였습니다.
- 이후 2017년에 시행된 의료급여 정신과 입원수가 개편 및 법령 개정에 따라 평가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자 「의료급여 정신과 적정성 평가 개선 방안 연구」를 추진하였습니다.
- 이를 바탕으로 평가 기준을 개선하여 「2019년도(5차) 의료급여 정신과 적정성 평가」를 실시합니다.

평가 목적 및 개선 방향

- (평가 목적) 효과적인 의료서비스 제공 및 지역사회 복귀 기반 마련
- (개선 방향)
 - (지표 효율화) 진료 중심, 지역사회 복귀 유도를 위한 핵심지표로 구성
 - (평가 방향성 및 예측 가능성 확보) 지표별 가중치 사전 공개
 - (평가 대상 확대) 안정적인 결과 산출을 위한 대상 기간 확대, 「의료급여법 시행규칙」개정에 따른 대상 기관 확대

평가 대상

- (대상 기간) 2019년 1~6월(6개월)
- (대상 기관) 의료급여 정신과 입원진료비를 청구한 제1~3차 의료급여기관
※ 제외 대상: 평가 대상 건이 10건 미만인 기관



평가 기준(평가 지표)

• 2019년 평가는 4차 평가 지표(20개)를 정비하여 총 9개 평가 지표로 시행됩니다.

구분	지표명	가중치		
진료 영역 (9)	총 소계		10	
	과정 (2)	과정 지표 소계		2
		정신요법 실시 횟수(주당)	균등	
	개인정신치료 실시 횟수(주당)	분할		
	결과 (7)	결과 지표 소계		8
		재원환자의 입원일수_중양값(조현병)	1	
		재원환자의 입원일수_중양값(알코올장애)		
		퇴원환자의 입원일수_중양값(조현병)	2	
		퇴원환자의 입원일수_중양값(알코올장애)		
퇴원 후 30일 이내 낮병동 또는 외래방문율(조현병, 알코올장애)		2		
퇴원 후 30일 이내 재입원율(조현병)		2		
지역사회서비스 연계 의뢰율(조현병)	1			

※ 그룹화한 가중치는 지표별 균등 분할

평가 자료 및 평가 방법

- 평가 자료는 웹 기반 'E-평가자료제출시스템'을 이용하여 의료급여기관이 직접 제출한 조사표와 심사평가원에 청구한 의료급여비용 청구명세서를 활용합니다.
- 평가는 평가 지표별로 표준화 점수 및 가중치를 반영하여 기관별 종합점수를 산출합니다.

평가 결과 활용(2020년 7월 공개 예정)

- 평가 결과는 국민들이 의료이용정보로 활용할 수 있도록 심사평가원 홈페이지에 공개합니다. 또한, 의료급여기관에는 의료 질 향상을 위해 해당 기관의 평가 결과와 비교 정보를 제공합니다.
※ 평가 일정 추진은 여건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음

의료급여 정신과 적정성 평가계획 세부내용은 심사평가원 홈페이지(<http://www.hira.or.kr>) > 알림 > 공지사항과 E-평가자료제출시스템(<http://aq.hira.or.kr>) > 평가알림방 > 평가알림방 (구. 요양포털) >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17년도(2차) 중환자실 적정성 평가 결과 안내

평가 배경 및 목적

- 중환자실은 환자의 생명을 위협하는 상황이 예고 없이 발생할 수 있는 곳이므로 위급한 상황에 즉시 대처할 수 있도록 적절한 인력과 장비는 물론 감염에 대비한 시스템을 갖추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중환자실의 균형적이고 지속적인 질 향상을 위해 중환자실 환경과 진료 현황에 대해 적정성 평가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

• 평가 대상

대상 기간	2017년 5~7월(3개월)
대상 기관	상급종합병원 및 종합병원
대상 환자	만 18세 이상, 일반 중환자실에 입원한 환자 ※ 제외 대상: 신생아 및 소아 중환자실, 화상환자, 중환자실 입실 기간 48시간 미만 환자

• 평가 지표

- 인력·시설 등을 평가하는 구조지표(4개)와 진료 관련 지표(3개), 총 7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영역	내용
구조(4)	1. 전담전문의 1인당 중환자실 병상 수
	2. 간호사 1인당 중환자실 병상 수
	3. 중환자실 전문장비 및 시설 구비 여부
	4. 중환자실 진료 프로토콜 구비율
진료(3)	과정(2)
	5. 심부정맥 혈전증 예방요법 실시 환자 비율
	6. 표준화사망률 평가 유무
결과(1)	7. 48시간 이내 중환자실 재입실률

평가 결과

- 중환자실 2차 적정성 평가는 1차 평가에 비해 대부분 지표의 평가 결과가 향상되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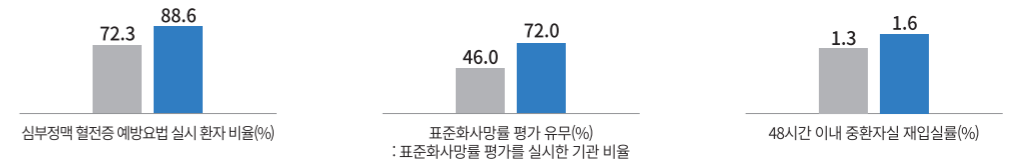
- 구조지표 중 전담전문의 1인당 병상 수는 감소하고 시설·장비와 진료 프로토콜 보유는 증가하여 1차 평가에 비해 중환자실의 시스템이 개선되었습니다.
- 진료 부분은 움직이지 않는 자세에서 발생하는 심부정맥혈전증을 예방하는 요법 실시와 표준화사망률*을 관리하는 기관 증가로 의료 질 개선을 위한 중환자실의 노력을 볼 수 있습니다.
* 표준화사망률은 실제 사망자 수와 중증도 도구로 계산한 예측사망자 수의 비율
- 다만, 간호사 1인당 중환자실 병상 수는 거의 변화가 없고 48시간 이내 중환자실 재입실률은 약간 증가되었습니다.
- 각 지표의 점수를 종합화한 결과는 69.2점으로 1차 평가 결과 58.2점 대비 11점 상승하여 중환자실 의료 질 개선을 알 수 있습니다.

구조 지표

■ 1차 평가 ■ 2차 평가



진료 지표



평가 결과 공개 및 향후 계획

- 2차 중환자실 적정성 평가 결과는 5등급으로 구분하여 홈페이지에 공개하였습니다. 1차 평가에서 12기관이었던 1등급은 64기관으로 크게 늘어났고 모든 권역에 분포하고 있습니다.
-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www.hira.or.kr) 또는 건강정보 앱 > 병원·약국 > 병원평가 > 중환자실
- 심사평가원은 중환자실 평가 결과 및 계획 관련 지역별 설명회 개최 및 기관별 맞춤 상담 등을 통해 중환자실의 질향상 활동을 지원하겠습니다.
- 다음 평가 세부 계획은 전반적인 지표 검토 및 보완 후, 2019년 상반기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할 예정입니다.



자동차보험 진료정보 조회 대국민서비스 안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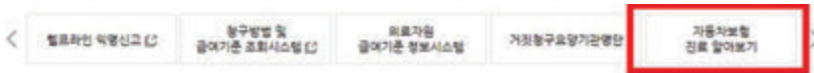


개요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2013년 7월부터 자동차보험 진료비심사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고 있습니다.
- 교통사고환자가 자동차보험으로 진료받은 내역을 심평원 홈페이지에서 간편하게 조회할 수 있는 서비스를 2018년 11월부터 새롭게 오픈합니다.
- ※ 자동차보험 환자의 진료정보 간편조회를 통한 국민 편의 제고 및 알 권리 보장

이용 절차 및 경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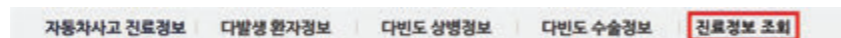
- ①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https://www.hira.or.kr>) 접속
- ② (우하단) '자동차보험 진료 알아보기' 클릭



- ③ (상단) '자동차보험 진료 알아보기' 클릭



- ④ (상단) '진료정보 조회' 클릭



- ⑤ 공인인증서를 통한 본인인증

세부 내용

- 제공 내용: 최근 5년간 자동차보험으로 청구된 진료내역 (의료기관명, 진료개시일, 입내원일수, 보험사명, 진료 형태, 총 진료비)



Q&A



Q1. 타인(자동차사고 피해자 등)의 진료내역을 열람할 수 있나요?
A1.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환자 본인이 아닌 제3자 열람은 불가합니다.

Q2. 자동차보험으로 진료를 받았는데, 조회가 되지 않습니다.
A2. 다음과 같은 일부 진료내역은 조회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1) 직불진료내역(보험사 지급보증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환자가 의료기관에 직접 지불한 진료비)
- 2) 의료기관이 청구하지 않은 최근 진료
- 3) 의료기관에서 청구하였으나, 심사가 완료되지 않은 경우
- 4) 심사위탁 보험회사(13개)·공제조합(6개)이 아닌 경우
 - ▷ (보험회사) AIG손해보험, AXA손해보험, BNP파리바카디프, DB손해보험, KB손해보험, MG손해보험, The-K손해보험, 롯데손해보험, 메리츠화재, 삼성화재, 한화손해보험, 현대해상화재, 흥국화재
 - ▷ (공제조합) 전국개인택시공제조합, 전국렌터카공제조합, 전국버스공제조합, 전국전세버스공제조합, 전국택시공제조합, 전국화물자동차공제조합

응급의료비 대지급 제도 안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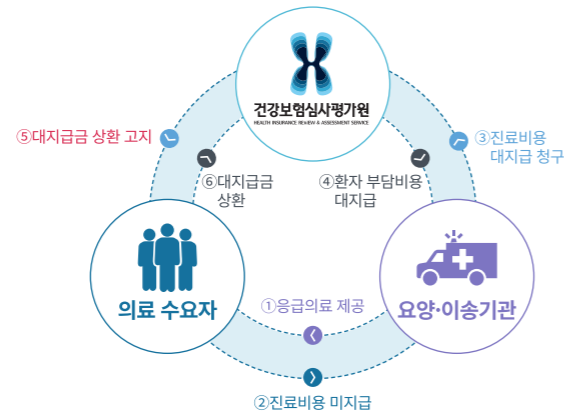
응급의료비 대지급 제도란?

- 응급실에서 응급증상으로 진료받은 후 형편이 어려워 진료비를 내지 못할 경우, 국가가 우선 진료비를 병원에 지급해주고 나중에 응급환자 또는 가족 등으로부터 진료비를 돌려받는 제도입니다.



*** 응급증상이란?**
질병, 분만 각종 사고 및 재해로 인해 부상이나 그 밖의 위급한 상태로 인하여 즉시 필요한 응급 처치를 받지 아니하면 생명을 보존할 수 없거나 심신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거나 또는 이에 준하는 증상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별표1])

대지급 업무 처리 절차



지원 범위

- 응급환자가 부담하여야 할 응급의료비용
- 응급환자 이송으로 발생한 사설 응급구급차 이용비용

신청 방법

- 응급실 원무과 응급 대지급 담당자 및 사설 응급환자 이송업자를 통해 신청

상환 방법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상환고지서를 받으신 후 고지서에 적힌 안내에 따라 정해진 기간 안에 납부하시면 됩니다(12개월 내 분할납부 가능).
- 응급의료비 대지급 제도를 이용하면 응급환자 본인 이외의 상환의무자에게도 납부의무가 생깁니다.
* 상환의무자: 응급환자 본인과 그 배우자, 응급환자의 1촌 이내 직계 혈족 및 그 배우자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진료비 부담 의무자
- 납부 능력이 있음에도 대지급금을 상환하지 않을 경우, 국제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예금압류 등 강제징수 조치가 취해질 수 있습니다.

더 알고 싶어요! 응급의료비 대지급 제도

<p>Q1</p> <p>병원비 전체를 지원받는 건가요? 응급증상에 따라 응급진료가 시작된 날부터 종료된 날까지 발생한 진료비 중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 금액만 대지급 해드리고 있습니다.</p>	<p>Q2</p> <p>응급실 진료를 받기만 하면, 대지급 제도의 대상이 될 수 있나요? 의학적 응급처치가 필요하지 않은 단순만취자, 지갑이나 현금을 소지하지 않은 상황, 응급실에서 일반병동으로 옮긴 후 발생한 일반진료비 등은 대지급 대상이 아닙니다.</p>	<p>Q3</p> <p>저는 의료급여 수급자인데도 진료비가 많이 나왔어요. 왜 이런가요? 응급진료 중 비급여 항목에 해당하는 치료(MRI, 초음파)를 했을 경우 의료급여 수급자이더라도 병원비가 많이 나올 수 있습니다. * 비급여 적용항목은 응급증상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p>
<p>Q4</p> <p>미납확인서는 꼭 본인이 작성해야 하나요? 응급의료비 대지급 제도는 대지급금 상환을 전제로 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응급환자 본인 또는 상환의무자가 미납확인서를 작성해야 합니다.</p>	<p>Q5</p> <p>응급상황으로 진료받은 병원비를 다 납부한 후에 응급의료비 대지급 제도를 알게 되었어요. 형편이 상당히 어려워데, 지금이라도 응급 대지급 제도를 신청할 수 있을까요? 이미 종료된 진료 건에 대해서는 응급의료비 대지급 제도를 이용하실 수 없습니다.</p>	<p>Q6</p> <p>응급의료비 대지급 제도를 신청하고 싶은데 병원에서 신청을 받지 않아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응급 대지급 제도는 법령에 정해진 위급한 상태의 증상으로 응급진료를 받고 병원비를 납부할 능력이 없는 환자를 위한 제도로, 병원의 전문 의료진의 판단에 따라 이용할 수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p>

외국인근로자 등 의료지원사업 안내

의료지원사업이란?

- 건강보험, 의료급여 등 각종 의료보장제도에 의해서도 의료 혜택을 받을 수 없는 사람들에게 의료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인간으로서 누려야 할 최소한의 건강한 삶의 질을 보장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대상자

- 외국인근로자, 노숙인, 국적 취득 전 결혼이민자, 난민 및 이들의 18세 미만 자녀가 대상이며, 여권, 외국인등록증, 의료보장제도 적용 여부 등으로 대상 적격 여부를 확인합니다.

지원 범위

- 진료비의 90%를 지원하며 1회당 500만원 범위 내에서 지원하되, 500만원 초과 시 요양기관에서 자체 심의 후 초과사유서를 사도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급여 대상을 지원하나 초음파에 한하여 비급여까지 지원하되, 선별급여, 완화의료,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등은 지원에서 제외됩니다.

대상 기관

- 국립중앙의료원 등 당연지정기관 및 사도로부터 사업 시행 의료기관으로 등록된 의료기관이 대상 기관이며, 전체 84개소(2018년 기준) 중 종합병원 73개소, 병원 10개소, 의원 1개소입니다.
- 의료지원사업 대상 기관 관련 자세한 사항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www.hira.or.kr)의 병원·약국 > 세부조건별 찾기 > 분야별 > 소외계층 의료서비스지원 사업기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진료비 청구·심사·지급업무 흐름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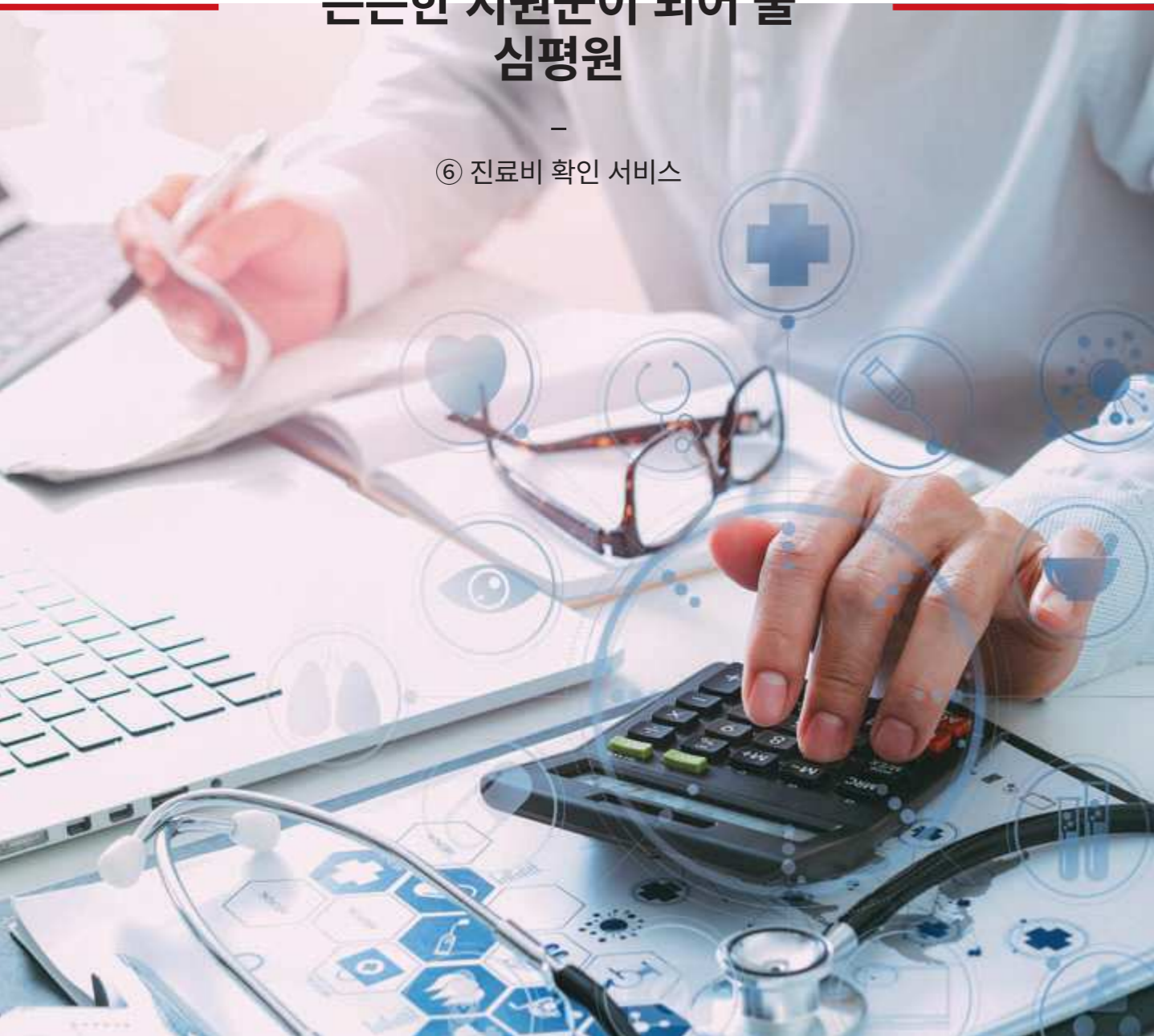


신포괄수가제 시범사업



환자 중심 의료 재편, 튼튼한 지원군이 되어 줄 심평원

⑥ 진료비 확인 서비스



아픈 것도 서러운데 진료비까지 생각보다 많이 나왔다면 고통은 배가 되겠죠? 혹여나 청구된 진료비에 이의를 제기했다가 다시 병원에 왔을 때 부당한 대우를 받을지도 모른다는 걱정엔 ‘설마 진료비를 많이 청구하지는 않았겠지...’라는 생각으로 그냥 넘어간 분이 많으셨을 겁니다. 또한 병원비가 적절하지 혼란스러울 때가 많았기 때문에 병원을 믿고 따를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잘 모르기 때문에 더 알아봐야 하지 않을까요? 국민들은 진료비가 적절한지 알아보는 과정이 복잡하고 어려우면 시작부터 포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다 쉽고 빠르게 진료비를 확인할 수 있는 장치가 필요한데요. 이런 장치가 바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운영 중인 ‘진료비 확인’ 제도입니다.

정확한 진료비 내역 이렇게 확인하자

우리가 병원에 갔을 때 내는 진료비는 건강보험 적용 대상인 급여 비용과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환자 본인이 전액 부담하는 비급여 비용이 있습니다. 이 중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급여 비용은 병원에서 심평원에 청구하고, 심평원은 환자의 진료비 내역을 꼼꼼히 심사한 후 국민건강보험공단을 통해 지급합니다.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전액을 본인이 부담하는 비급여 진료비도 기준에 맞게 부담했는지를 확인해 주는데요. 이것이 진료비 확인 제도입니다. 여기서 진료비 확인 제도를 보다 정확하게 알고 넘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진료비 확인 제도는 국민건강보험법 제48조(요양급여의 대상 여부의 확인 등) 및 의료급여법 제11조의3(급여 대상 여부의 확인 등)에 따라 환자 또는 보호자의 신청으로 내가 낸 진료비 중 건강보험이 적용됐어야 할 비용이 비급여로 부담된 것은 아닌지 심평원에서 확인해드리는 서비스입니다.

진료비 확인은 인터넷, 모바일, 우편, 방문상담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심평원에 직접 찾아가도 되지만 인터넷을 통해 신청하면 훨씬 간편합니다. 진료비 확인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해당 의료기관에서 발행한 외래, 입원(퇴원) 진료비계산서, 영수증 또는 진료비(약제비) 납입 확인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하기 전, 심평원 홈페이지 자가 점검 서비스를 이용해서 내가 낸 진료비가 급여인지 비급여인지 간단하게 확인해 볼 수 있는데요. 의료기관의 진료비 세부내역서의 비급여 항목 명칭이나 코드를 이용해서 직

접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조회했을 때 비급여라고 확인되면 진료비를 맞게 지불한 것이고, 급여로 확인되면 진료비 확인 서비스를 신청해볼 만 한 것이 됩니다. 물론 급여로 확인됐다고 하더라도 건강보험 기준에 따라 환불금이 발생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간혹, 신청했는데 환불금이 없다고 실망하시는 분도 계시는데요. 진료비 신청을 통해 환불받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내가 다니는 병원이 적정하게 진료비를 청구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게 되니 진료비에 대한 오해로 고민하는 시간을 덜어주는 물론, 병원에 대한 신뢰도와 진료 만족도도 높아지는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진료비 확인 서비스는 의료 소비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권리구제 방식인 만큼 이제는 진료비가 걱정된다면 망설임 없이 심평원 홈페이지를 이용해 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 환불금이란?**

진료비 확인 결과 관련 법령에서 정한 진료비용 외의 비용을 환자가 과다하게 지불한 경우가 확인되었을 경우 환자에게 환불되는 금액을 의미합니다.

진료비 정보 제공 안착... 국민들에게 힘이 되어주기를

지금까지 설명한 진료비 확인 제도의 안착을 위해 심평원은 그간 많은 노력을 해왔습니다. 2017년에는 연간 2만 2,000건의 진료비 확인 요청 및 심사가 이루어졌으며, 그중 6,700여 건(약 30%)이 환불 대상으로 판명되어 과오납 의료비용 약 17억 원을 국민들에게 환불해주었습니다. 제도 도입 이후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국민들이 의료비용을 점검하고 환불받을 수 있음을 알려왔고, 의료기관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과 진료비 청구 기준 안내 등을 통해 의료기관이 진료비를 알맞게 청구할 수 있도록 노력해 왔습니다.

이런 노력으로 매년 환불 처리율과 환불 금액이 감소하고 있는데요. 2013년 대비 2017년 총 환불금액이 43.3%나 감소했다는 사실을 통해 진료비 확인 서비스로 국민 권익이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심평원은 앞으로도 진료비 확인 서비스를 더 많은 국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를 실시함과 동시에 진료비 확인의 심사 절차와 프로세스를 효율화하여 보다 빠르게 심사와 환불이 이루어지도록 할 예정입니다.

최근 공급자에 치우쳐 있던 의료를 환자 중심으로 재편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어느 때 보다 높은 상황입니다. 심평원이 진료비 확인 제도를 발판 삼아 의료 분야에 대한 정보가 부족했던 국민들에게 '힘'이 되어 주기를 기대해봅니다.

확인할 길 없던 병원별 비급여 진료비도 한눈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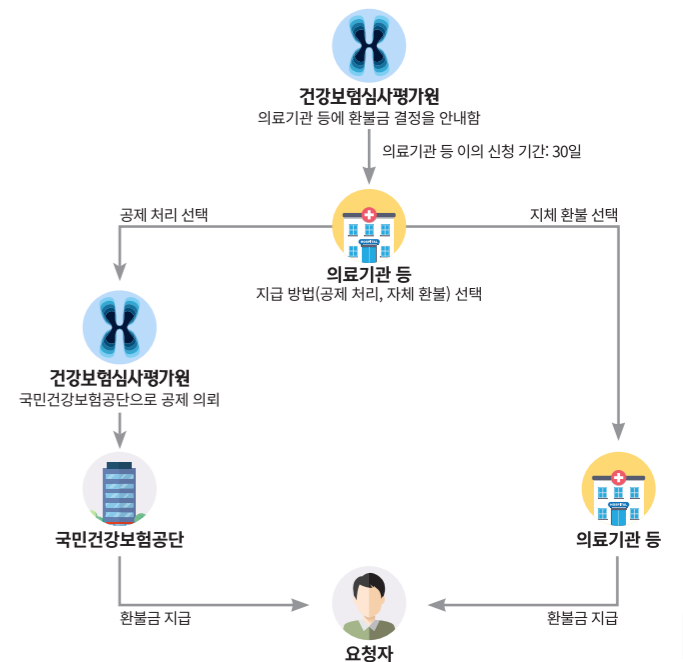
현재 정부는 소위 '문재인 케어'로 불리는 보장성 강화 정책에 따라 의학적 타당성이 있는 3,600개의 의료행위를 건강보험으로 전환하겠다는 획기적인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같은 정책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건강보험에 적용되지 않아 환자에게 부담이 될 수 있는 비급여 진료비는 남아 있습니다. 비급여 진료비는 병원에서 정할 수 있기 때문에 의료기관마다 금액이 다른데요.

심평원은 이런 비급여 진료비를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일괄 공개하고 있습니다. 이전에는 병원들이 자체 홈페이지를 통해 비급여 진료비를 게재해왔지만, 직접적인 병원 간 가격 비교를 하는 데는 무리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심평원이 기관 홈페이지와 건강정보 앱을 통해 비급여 진료비를 공개하고 있어서 지금은 누구나 비급여 진료비를 꼼꼼히 비교해보고 병원을 선택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심평원은 종전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107개 항목의 비급여 진료비를 공개했었는데 올해 4월부터는 100개 항목이 추가된 207개 항목을 공개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추가 항목으로는 근골격계 질환에 실시하는 도수치료, 근육·인대 등에 실시한 증식치료, 무릎·어깨 등 관절 부위 초음파 및 MRI 등이 있습니다.



환불금 지급 처리 절차



‘의료행위 급여기준’ 및 ‘인공와우 건강보험 적용’ 확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에 따라 ‘의학적 비급여의 급여화’의 일환으로 횟수·개수·적응증 등 급여기준*에 따라 건강보험이 제한적으로 적용되고 있는 항목을 대상으로 단계적으로 급여범위 확대를 통해 국민의 의료비 부담을 줄이고 있으며, 2018년 주요 개정사항은 다음과 같다.

*건강보험 급여기준: 건강보험은 한정된 재원을 국민들에게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급여기준으로 요양급여범위(적응증, 인정개수 또는 사용 횟수 등)를 정하여 운영.

*관련근거: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3호 (2018.4.1. 시행), 제2018-185호 (2018.11.1. 시행).

급여기준 적용범위 확대

의학적 필요성이 인정되는 항목에 대해 급여기준의 횟수, 개수 또는 적응증 등 건강보험 적용이 확대된다.

항목	주요 내용	
보육기	저체중출산아 체중이 2,100g 도달 시, 광선치료(phototherapy) 목적의 경우 7일 이내 급여 적용 ⇒ 이용 횟수만큼 급여 적용	
고막 절개술	고막 염증 제거를 위한 절개 시 치료 기간 중 2회 급여 적용 ⇒ 시술 횟수만큼 급여 적용	
치질 수술 후 처치	치핵, 치루 수술 후 좌욕, 단순 처치를 동시에 실시하는 경우 외래 진료 기간 중 7회까지 급여 적용 ⇒ 시행 횟수만큼 급여 적용	
결핵균 및 리팜핀 내성 신속 검사	다제내성 결핵 의심 환자에게 2시간 이내 결핵균 감염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신속검사는 치료 기간 중 1회 급여하고, 그 외 예비급여 본인부담률 80% 적용 ⇒ 대상, 횟수 등 제한 기준 폐지, 의학적으로 필요한 만큼 급여 적용	
간 또는 신생검 시 특수염색검사	간 또는 신생검 시 조직의 미세한 구조, 성분, 감염균 확인 등을 위해 시행하는 특수염색 검사는 간생검 시 3종, 신생검 시 4종까지 급여 ⇒ 횟수 제한 폐지, 필요한 검사 횟수만큼 급여 적용	
격리실 입원	대상	홍역, 수두 등 감염병의 경우 감염의 위험이 있는 전염성 환자를 다른 환자와 격리 치료가 필요한 경우 격리실 입원 치료 가능 ⇒ 격리실 입원 치료 가능한 질환 노로바이러스, 수족구병, SFTS, MERS 등 4종 확대
	기간 등	폐렴, 폐결핵이 의심되는 환자나 결핵 환자에 대해서는 결핵균 검사 연속 3회 음성이 나올 경우, 최소 2주간 입원 등으로 제한 ⇒ 결핵 입원 제한기준을 삭제, 의학적으로 필요한 만큼 입원 급여 적용
이식형 사건 기록기 검사	가슴 부위에 기록기를 삽입하여 심전도를 측정하는 시술로, 재발성 실신, 재발성 뇌졸중 등에 급여 인정 ⇒ 원인불명의 최초 뇌졸중에도 급여 적용 확대	



예비급여* 적용

비용효과성이 명확하지 않으나 치료에 필요하다는 사회적 요구가 있는 항목에 대해 본인부담률을 차등하는 예비급여를 적용하여 의료의 자율성이 확대된다.

*(예비급여)미용·성형 등의 치료는 비급여를 유지하고 비용효과성 등 진료상의 경제성이 불분명한 비급여는 본인부담률을 차등화하여 건강보험을 적용하고 일정 기간 경과 시 재평가를 통하여 본인부담률 유지 또는 인하 검토

항목	주요 내용
장기이식 시 약물검사 등 7항목	간, 신장, 조혈모세포이식 등 장기이식 시 시행하는 약물 및 독물 검사는 시행 횟수가 1~3회 까지 급여 적용 ⇒ 기준을 초과하여 시행하는 경우 예비급여 적용
헬리코박터 파이로리 균주 검사	헬리코박터파이로리 균주 검사는 소화성궤양, 조기위암절제술 등 일부 적응증에 제한하여 급여 적용 ⇒ 기준에서 정한 적응증 이외에 시행하는 경우 예비급여 적용
갑상선 기능검사	갑상선 기능장애의 진단 및 치료를 위한 검사는 3종류 이내에서만 급여 적용 ⇒ 3종류를 초과하여 시행할 경우 예비급여 적용
전염성연속종(물사마귀)제거술	전염성연속종(물사마귀)을 제거하는 시술은 치료 기간 중 최대 2회 급여 ⇒ 3회까지 급여 확대하고 3회 초과 시는 예비급여 적용
전립선마사지	만성화된 전립선염 등에 실시하는 전립선마사지는 주 2회까지 급여 ⇒ 초과하여 시행하는 경우 예비급여 적용
갑개소작술	알레르기비염 환자 등에게 전기, 약물 등으로 비갑개를 소작하는 시술은 주 1회 급여 ⇒ 초과하여 시행하는 경우 예비급여 적용
내시경적 점막하박리절제술(ESD)	위 점막에 발생한 암(조기암)을 내시경을 이용하여 제거하는 수술로, 위 이외에는 전액본인 부담 ⇒ 위, 식도, 결장의 일부 조기암에 급여 적용하고, 그 외에는 예비급여 적용



11월부터 소아 난청수술의 진료비 부담이 줄어듭니다.

난청수술 재료인 인공와우 (달팽이관)의 건강보험 적용 대상 및 범위가 확대된다.

만 1세인 딸은 양측 청력이 70dB인데요.
이렇게 양측 감각신경성 난청으로 양쪽에 인공와우
이식술을 받으면 치료비 부담은 얼마나 낮아지나요?

인공와우 치료재료비 약 4,200만 원

본인부담률 80% 적용
약 3,300만 원
개선 전

15세 이하 아동 입원
본인부담률 5% 적용
약 210만 원
개선 후

만 17세인 아들은 양측 인공와우 이식을
건강보험으로 적용받았고,
이번에 외부장치 한쪽을 분실하여 교체하는 경우,
치료비 부담은 얼마나 낮아지나요?

본인부담률 80% 적용
약 810만 원
개선 전

종합병원, 외래 기준
급여 인정으로
본인부담률 50% 적용
약 500만 원
개선 후

난청수술 재료(인공와우) 건강보험 적용 대상 확대

개선 전
90dB 이상
0세 2세

개선 후
90dB 이상
0세 1세 2세

1세 이상 2세 미만의 경우,
90dB에서 70dB로 기준 완화

난청수술 재료(인공와우) 외부장치 교체 시 건강보험 적용 개수 확대 (만 19세 미만)

개선 전
외부장치 교체
편측 시술자만
1개 인정

개선 후
양측 시술자
2개까지 인정

자세한 내용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고객센터
(1644-2000)로
문의하세요!

“민생을 위한 나라,
다 함께 잘 사는 포용 국가”

환자와 가족이 소중한 마무리를 준비하는 공간

강원대학교병원 완화의료센터

임종은 지우고하 경제력을 막론하고 누구나 맞게 된다. 태어나는 이상 피할 수 없는 삶의 이치다. 필연적인 삶의 과정이지만, 대부분의 사람은 그것을 달갑게 받아들이기 어렵다. 특히 삶의 마지막을 선고받은 이른바 ‘시한부 환자’들의 경우 하루하루가 힘겹기 그지없을 것이다. 그런 이들을 위해 죽음에 대해 새롭게 정의하고 있는 강원대학교병원 완화의료센터의 풍경에 주목했다.



전국 최고 수준의 의료진·시설 구축 완료

드라마와 영화 속에서 소위 ‘시한부 판정’을 받은 환자의 표정은 말로 설명하기 어렵다. 죽음의 순간을 확정받은 심정을 누가 짐작이나 할까. 일반인이라면 그 심정을 헤아리지 못할 것이다.

주로 말기 환자가 찾는 ‘호스피스 병동’ 역시 이와 같은 연장선에 있다. 천천히, 하지만 분명하게 다가오는 죽음을 기다리는 환자들의 우울함이 가득할 것만 같은 호스피스 병동의 분위기를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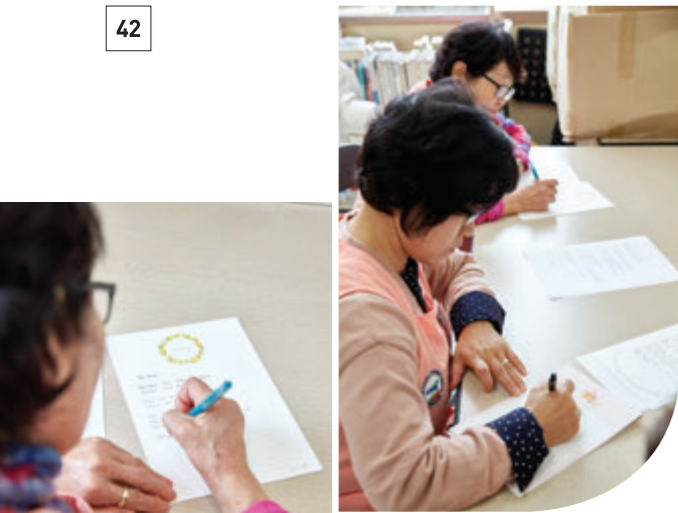
강원대학교병원(이하 강원대병원)에서 운영하는 완화의료센터는 ‘호스피스 병동’의 새로운 이름이다. 호스피스의 사전적 의미는 ‘죽음을 앞둔 환자가 평안한 임종을 맞도록 위안을 베푸는 봉사활동’으로, 강원대병원이 지향하는 전문적 의료 활동과는 다소 거리가 있는 단어라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서현애 강원대병원 완화의료팀 호스피스전문간호사는 “말기 암 환자야말로 그 어떤 질병보다 적극적이고 지속적인 전문 의료서비스가 필요하다”라며 “특히 시시각각 극심한 고통에 시달리는 환자의 통증을 완화해줌으로써 앞으로의 남은 삶을 보다 편안하고 의미 있게 살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다”고 말했다.

이렇듯 통증 등 환자를 힘들게 하는 신체적 증상을 조절하기도 하는데, 많은 사람이 말기 암 환자에게 사용되는 진통제를 마치 마약처럼 무조건 ‘나쁜 약’으로 규정짓는 경향이

있다. 물론 어느 정도 일부 성분이 포함된 것은 사실이지만, 환자들의 건강을 직접적으로 위협하지는 않는다. 즉 ‘잘못된 인식’에서 비롯된 ‘편견’인 셈이다.

서 전문간호사는 “우리 병동에서는 환자의 증상을 24시간 실시간으로 관찰해 각자의 증상에 따라 그에 맞는 적정량의 진통제 처방을 시행하고 있다”라며 “이를 위해 전국 최고 수준의 관련 전문의 네 명이 수시로 회진을 돈다”고 설명했다. 강원대병원 완화의료센터는 총 10병상으로 이루어져 있다. 규모에 비해 병상 수가 매우 적다. 그럼에도 환자들이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널찍한 휴게 공용공간을 비롯해 거동할 수 없을 만큼 몸이 불편한 환자의 목욕을 위한 고가의 목욕



전용 침상, 가족들이 쉴 수 있는 별도의 휴식 공간, 임종 전 마지막 시간을 함께 보낼 수 있는 임종실 등 말기 암 환자를 위한 모든 시설 및 장비를 갖출 수 있었던 것은 수익보다 환자 삶의 질에 초점을 맞췄기에 가능했다.

서 전문간호사는 “절박한 상황에 몰린 환자들이 찾는 완화의료센터에서 수익을 목적으로 한다는 건 어불성설”이라고 목소리를 높이며 “1인실을 제외한 병실의 입원비와 관련 진료비는 모두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만큼 비용 부담을 덜고 편하게 방문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임종이야말로 오랜 준비가 필요하다

모든 의료서비스가 환자 중심으로 운영되는 강원대병원 완화의료센터는 단순히 환자가 삶의 마지막 순간까지 머무는 의료기관이 아닌, 자신의 인생을 되돌아보고 더 나은 마무리를 준비하는 공간을 지향한다.

서 전문간호사는 “강원대병원 완화의료센터의 의료서비스는 그저 환자의 통증 및 증상 관리에 국한되지 않는다”라고 강조하며 “환자들이 자신의 지난 삶을 소회하고 이를 통해 보다 나은 방향으로 마무리를 도모하도록 돕고 있다”고 말했다.

호텔 로비를 떠올리게 할 만큼 고급스러운 분위기의 완화의료센터에서는 임종을 기다리는 시한부 환자의 우울함을 찾아볼 수 없다. 오히려 환자들은 병문안 온 가족이나 지인과 가벼운 농담을 주고받으며 종종 너털웃음을 터뜨리곤 한다.

서 전문간호사는 “물론 자신의 죽음을 온전히 받아들이기 까지 꽤 오랜 시간과 꽤 험난한 과정을 겪어야 한다”라며 “하지만 지속적인 대화와 소통으로 죽음은 결코 슬픈 일이 아니라는 인식을 공유함으로써 그들에게 남은 삶의 소중한 가치를 일깨워주고자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완화의료센터 병실 문에는 이곳을 다녀간 환자들과 가족들의 사진과 편지가 붙어 있다. 사진 속 이들의 환한 웃음은 죽음이란 냉혹하고도 잔인한 판결을 받은 시한부 환자라는 사실이 믿기지 않을 정도로 해맑다. 자신의 죽음을 겸허히 받아들임으로써 남은 시간을 1초도 소홀하게 사용하지 않기 위해 노력한 이들의 만족감이 절절하게 스며있는 것이다.

서 전문간호사는 “올해 초 한 70대 여성 환자는 처음에는 주변 사람들이 불편하지 않을까라는 걱정엔 면회조차 거절했다. 하지만 오랜 소통을 통해 결국 자신의 가치를 깨달은 후 지인들을 병원으로 초대했고, 마지막에는 의료진을 품에

꼭 안아주며 ‘고맙다, 선생님 덕분에 내가 소중한 사람임을 알게 됐다’는 말을 남겼다”라며 아름답게 삶을 마무리한 환자의 사례를 전했다.

물론 강원대병원 완화의료센터 역시 기존 호스피스와 기본적인 기능에 충실하고 있다. 전문의와 전문간호사, 사회복지사, 성직자, 자원봉사자 등이 참여해 환자를 위한 각종 호스피스 프로그램을 시행한다. 다도 요법과 원예 요법, 공예 요법을 비롯해 가족과 함께 참여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병행한다.

서 전문간호사는 “우리 센터는 임종을 마친 환자 가족에 대한 사후관리도 시행한다”라며 “남겨진 이들의 슬픔을 다독이는 것까지가 완화의료센터의 역할이라는 생각에 의료진 및 자원봉사자를 중심으로 다양한 사별 가족 돌봄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센터 곳곳에는 가족들이 먼저 떠난 환자에게 쓴 편지가 붙어있다. 구구절절 환자를 향한 그리움이 가득하지만, 그 어디에서도 슬픔이란 감정은 찾아볼 수 없다. 자신의 죽음을 겸허히 받아들인 후 남은 시간을 오롯이 가족과 함께 한 덕분이다.

서 전문간호사는 “말기 암 진단을 받으면 환자와 가족 모두 그저 숨기기 급급한 경우가 많다”라며 “하지만 가족은 물론 주변 지인과 이러한 사실을 공유함으로써 자신의 남은 삶의 가치를 극대화하려는 노력만이 후회라는 감정을 남기지 않는 최선의 방법임을 명심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강원대병원 완화의료센터는 입원형 호스피스뿐만 아니라 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로 구성된 전문팀이 직접 가정을 방문하는 ‘가정형 호스피스 사업’을 2018년 9월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했다.

많은 이가 임종이 임박한 환자들과 한 공간에 있어야 하는 완화의료센터 구성원에 대해 막연한 안타까움을 갖고 있다. 죽음은 결코 익숙해지지 않을 일인 까닭이다. 하지만 정작 강원대병원 완화의료센터 구성원들은 자신의 일에 큰 자부심을 갖고 있다. 고통과 후회에 일그러진 모습이 아닌, 가족들의 따뜻한 응원 속에서 담담히 임종을 맞는 환자들의 마지막은 결코 슬퍼할 일이 아니기 때문이다. 정해진 끝을 향하는 환자들과 아름다운 동행을 선택한 강원대병원 완화의료센터의 특별한 가치에 주목하는 이유다.

“ 자신의 남은 삶의 가치를 극대화하려는 노력만이 후회라는 감정을 남기지 않는 최선의 방법임을 명심해야 한다 ”





환자에게 꼭 필요한 정보만 꼭 짚어 가르쳐준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찾아가는 건강트럭’

환자는 궁금한 게 참 많다. 하지만 수많은 궁금증을 속 시원히 풀어줄 창구를 찾는 건 쉽지 않다. 이러한 국민들의 답답한 속을 시원하게 뚫어주기 위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이 팔을 걷어붙였다. ‘심평원의 찾아가는 건강트럭’ 행사 현장을 함께 한다.

국민이라면 누구나 건강할 권리가 있다

지난 9월 28일, 제22회 노인의 날(10월 2일)을 맞아 심평원의 ‘찾아가는 건강트럭(이하 건강트럭)’ 행사가 강원대학교병원에 등지를 틀었다. 강원도 지역 주민과의 소통과 사회적 가치 제고를 위해 기획된 건강트럭은 강원대학교병원(이하 강원대

병원) 완화의료팀과 사회적기업 ‘강원곳간’이 함께해 더욱 특별한 시간을 마련할 수 있었다.

배영덕 심평원 홍보부장은 “이번 건강트럭 행사는 지역 주민들을 직접 만나 궁금증을 해결해주고 건강보험 정책과 심평원이 제공하는 서비스를 통해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알리기 위해 마련했다”고 말했다.

이번 건강트럭은 강원대병원 본관 로비에서 진행됐다. 행사의 주요 내용은 ▲심평원의 7대 대국민 의료서비스 안내 ▲사회적 기업 강원곳간이 운영하는 건강트럭 ▲환자와 보호자를 위한 문화공연(버스킹, 매직쇼) 등 지역주민이 함께 즐기고 유익한 정보를 얻어갈 수 있는 알찬 프로그램들로 구성됐다.

특히 심평원에서는 ▲호스피스·완화의료 서비스 ▲만성질환 병원평가정보 ▲건강정보 앱 ▲DUR·내가 먹는 약! 한눈에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 등 7개에 달하는 대국민 의료서비스 분야의 적극적인 홍보를 시행했다.

배 부장은 “심평원의 7대 주요 대국민 의료서비스는 국민들의 알 권리 충족과 건강권 제고를 위해 시행되고 있다”라며 “건강에 관련된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정보는 물론 그간 ‘몰라서 받지 못했던’ 의료 혜택까지 확인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강원대병원과의 협업으로 말기 환자와 가족들을 대상으로 호스피스·완화의료 서비스 안내와 상담을 실시하여 삶의 질 향상 등 제도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 변화를 위한 시간을 가졌다.

서현애 강원대병원 통증완화센터 호스피스전문간호사는 “환자들이 ‘호스피스 병동’에 대해 가진 그릇된 편견과 부정적인 인식을 개선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됐다”라며 “특히 건강보험이 적용됨에도 불구하고 잘못된 정보 탓에 쉽사리 통증완화센터를 찾지 못하는 현실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적극적인 홍보에 나섰다”고 말했다.

환자들의 만족도 역시 매우 높았다. 지역 특성상 고령의 환자가 많은 까닭에 이날 역시 고혈압과 당뇨병 등 만성질환을 앓는 어르신들이 병원 내 마련된 행사장을 대거 찾았다. 심평원 직원들은 병원평가정보 조회방법 안내로 각 환자에게 맞는 병원이 어디인지 쉽게 찾을 수 있도록 도움을 줬다. 20년 이상 당뇨병을 앓고 있는 김순희 어르신은 “그동안 몰라서 받지 못한 다양한 의료 혜택을 알게 됐다”라며 “내 질환에 가장 적절한 병원을 찾아갈 방법을 알게 됐고, 내가 지금 먹는 약이 무엇인지 확인할 수 있게 되어 속이 다 시원하다”라며 환하게 웃어 보였다.

국민이라면 누구나 건강할 권리가 있다. 지역 주민들과의 직접적인 소통으로 소중한 건강권을 지키고자 노력하는 심평원 건강트럭 행사가 그래서 더 가치있게 다가온다.



정선 만항재에서 평창 대관령까지, 겨울왕국을 가다

강원도 정선과 평창은 겨울 여행 1번지로 손꼽힌다. 눈꽃으로 덮인 낙엽송들이 빼곡한 만항재에서 대관령까지 순백의 풍경이 이어진다. 동계 올림픽이 열렸던 뜨거운 무대를 만나고, 전나무 숲길을 지나면 천년고찰이 기다린다. 정겨운 오일장에는 메밀전병과 콧등치기국수 등 맛있는 먹거리들이 넘친다.



• 만항재 야생화쉼터

만항재, 차 문을 열면 황홀한 설경이 눈 앞에

함백산 만항재는 우리나라에서 차로 오를 수 있는 고개 가운데, 포장도로가 놓인 가장 높은 곳이다. 해발 1,330m의 이 고개는 봄부터 가을까지 야생화가 지천으로 피어 천상의 화원으로 불린다. 하지만 만항재의 진면목은 겨울이다.

한겨울의 만항재는 눈꽃 세상으로 바뀐다. 강원도 정선군 고한읍 고한리 상갈래교차로에서 만항재로 오르는 길 양옆으로 설경이 이어진다. 그림 같은 설경을 감상하며 오르다 보면 적멸보궁 사찰인 정암사, 문화 예술 공간인 삼탄아트마인을 지난다. 그리고 만항마을이 나오고 좀 더 오르면 만항재다.

차 문을 열면 입이 다물어지지 않는다. 낙엽송이 빼곡한 숲이 눈 앞에 펼쳐지고, 가지마다 눈꽃이 피어 황홀한 설경을 연출한다. 낙엽송 아래는 야생화 쉼터다. 산책로에는 야생화 대신 새하얀 눈꽃으로 가득하다. 이렇게 따 한 방울 흘리지 않고, 쉽게 마주해도 되는 풍경인지 황송할 따름이다. 만항재에서 걸어서 한 시간이면 함백산 정상에 닿는다. 산행을 좋아한다면 함백산 정상에 올라 우람한 백두대간의 능선을 마주해도 좋다.

삼탄아트마인, 예술로 변한 폐광

만항재 오르는 길에 있는 삼탄아트마인은 놓쳐서 안 될 명소다. 1964년부터 38년간 운영된 삼척탄좌는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탄광이었다. 한때 3,000명의 광부가 드나들던 그곳이 2001년 폐광되면서 흉물로 전락했다. 2013년 삼척탄좌를 줄인 삼탄과 예술(Art), 광산(Mine)을 합쳐 삼탄아트마인이라는 이름의 예술문화 공간으로 새롭게 태어났다.

녹슨 채 버려졌던 기계에는 예술혼을 불어넣었고, 시커먼 석탄으로 얼룩진 공간마다 꿈이 덧입혀졌다. 삼척탄좌 시절 종합 사무동은 삼탄아트센터로 바뀌었고, 150개국에서 수집된 10만여 점의 컬렉션이 전시된 현대미술관이 들어서 있다. 삼척탄좌의 중심 시설인 조차장은 레일바이뮤지엄으로 변신했다. 4분마다 400명의 광부가 채탄장으로 내려가던 곳이며, 20톤의 석탄을 끌어 올리던 현장이었다. 강철 로프와 컨베이어, 어마어마한 탄차는 당시 탄광 분위기를 생생히 느끼게 한다. 가장 흥미로운 곳은 TV 드라마 ‘태양의 후예’ 촬영지. 드라마에서 송혜교가 잡혀있던 장소는 공동 샤워실이었다. 송혜교가 묶여 있던 의자에는 ‘강모연’이 되어보려는 사람들로, 송중기가 입었던 ‘유시진 대위’ 옷은 기념사진을 찍으려는 사람들로 줄을 이룬다.

정선아리랑시장, 콧등치기국수 먹고 오일장 구경하기

병방치스카이워크도 코스에서 빼놓을 수 없다. 병방치스카이워크에 서면 동강이 휘감아 흐르며 만든 한반도가 한눈에 내려다보인다. 해발 583m 절벽 끝에 만들어진 스카이워크는 투명한 유리 바닥으로 되어 있는데 아래로 아찔한 허공이 펼쳐져 다리가 후들후들 떨린다. 스카이워크 옆에 있는 집라인(Zipline)에 도전하면 한반도 위를 나는 스릴을 즐길 수 있다.

정선아리랑시장은 1966년 개장한 전통 오일장이다. 장이 서는 2일 7일이면 황기, 곤드레, 산나물 등 정선의 특산물들이 넘쳐난다. 이곳에 가면 정선 향토음식인 콧등치기국수와 메밀전병을 꼭 먹어봐야 한다. 후루룩 입에 넣으면 콧등을 탁 친다는 콧등치기는 먹는 재미가 쏠쏠하다. 줄 서서 먹는 메밀전병은 한번 먹으면 그 맛을 잊지 못한다.

대관령눈꽃마을, 하늘 아래 첫 동네

한국의 알프스로 불리는 대관령, 그중에서도 높고 높은 산 속에 움푹 자리 잡은 마을이 대관령눈꽃마을이다. 9월 하순에 첫얼음이 얼고, 춘 3월까지 눈이 평평 내리는 하늘 아래 첫 동네다. 눈의 나라로

• 삼탄아트마인 현대미술관 작품



• 폐광에서 예술공간으로 변신한 삼탄아트마인



• 당시 탄광의 풍경이 고스란히 전해온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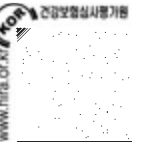
• 한반도 지형이 내려다 보이는 병방치스카이워크



• 월정사



• 대관령스키박물관



변신하는 겨울이면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이 진행돼 사람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다.

비탈진 지형을 이용해 만든 천연눈썰매장은 인기 최고다. 봅슬레이 눈썰매를 타며 스피드를 만끽할 수 있다. 여럿이 튜브를 연결해 기차처럼 타고 내려가면 더욱 짜릿하다. 너른 눈밭에서 스노우 래프팅도 즐길 수 있고, 전통썰매와 설피체험도 재미있다. 워낭, 코뚜레 만들기, 새집 만들기, 국궁 체험 등 다양한 체험이 기다린다.

대관령 바우길 2구간인 눈꽃마을길 트레킹은 눈꽃마을의 백미다. 목장, 숲, 능선을 따라 12km를 걸으며 설경에 흠뻑 취하게 된다. 모두 완주하려면 5~6시간이 소요되는데, 부담스럽다면 사파리목장 데크 전망대까지 왕복하는 2시간 구간만 걸어도 좋다. 완만한 구릉을 따라 말과 젖소들의 평화로운 풍경과 아름다운 설경을 원 없이 마주하게 된다. 데크전망대에 서면 풍력발전기가 도열해 있는 능선을 감상할 수 있다.

알펜시아 스키점핑 타워, 동계올림픽 무대에 서다

평창동계올림픽 스키 점프와 썰매 종목의 주 무대였던 알펜시아 스포츠파크에서는 스키 점프 전망대가 눈길을 끈다. 알펜시아 랜드마크인 이 전망대는 지하 1층, 지상 4층으로 이뤄졌다. 모노레일을 타고

5분 정도 올라가면 정상이다. 눈 앞에 펼쳐지는 새하얀 대관령 일대가 장관이다. 아찔하게 높은 스키 점프대는 영화 ‘국가대표’ 촬영지로 유명하다. 높이가 무려 97.7m. 활강을 앞둔 스키 점프 선수들의 긴장감이 고스란히 전해온다.

스포츠파크 안에는 한국 스키의 발자취를 한눈에 살펴볼 수 있는 대관령 스키박물관이 자리 잡고 있다. 한국 스키 발상지인 대관령에 관한 이야기와 스키의 역사를 한눈에 살펴볼 수 있다. 눈밭 덧신인 설피부터 나무로 만든 스키까지 재미있는 볼거리도 많고, 한국의 역대 선수들의 활약과 메달 등 진귀한 이야기도 엿볼 수 있다.

오대산 월정사는 오대산에 깃든 아름다운 고찰이다. 팔각구층석탑(국보 제48호)과 석조 보살좌상(보물 제139호) 등의 문화재, 적광전과 용금루, 보장각, 동별당 등 옛 전각들이 모여 있다. 무엇보다 일주문에서 금강교까지 이어지는 전나무 숲길이 매력적이다. 한국의 3대 전나무 숲으로 손꼽히는 이곳은 눈꽃 덮인 겨울이면 신비로운 분위기를 자아낸다. 지난해 방영 종료한 인기 드라마 ‘도깨비’에서 주인공들이 사랑을 확인한 장소로 등장하며 더 유명해졌다. 전나무숲길을 지나 상원사까지 이어지는 선재길 역시 사랑받는 길이다. 선재는 불교 경전 화엄경에 등장하는 동자승의 이름이다. 어린 승려가 산길을 걸으며 깨달음을 얻었듯이 자연을 온전히 느끼며 기쁨을 얻는 곳이 선재길이다.

• 하늘 아래 첫 동네로 불리는 대관령눈꽃마을



• 선수들의 긴장감이 느껴지는 알펜시아 스키점핑타워



TIP

TOURIST SPO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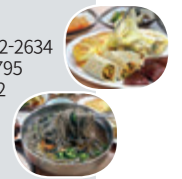
- 만항재 강원도 정선군 고한읍 / 1544-9053(정선군 관광 안내)
- 삼탄아트마인 강원도 정선군 고한읍 함백산로 1445-44 / 033-591-3001
- 병방치스카이워크 강원도 정선군 정선을 병방치길 225 / 033-563-4100
- 정선아리랑시장 강원도 정선군 정선을 봉양7길 39 / 033-563-6200
- 알펜시아대관령스키역사관 강원도 평창군 대관령면 솔봉로 325 / 033-654-3555
- 월정사 강원도 평창군 진부면 오대산로 374-8 / 033-339-6800
- 대관령눈꽃마을 강원도 평창군 대관령면 차항서넉길 27-22 / 033-333-3301

FOOD

- 회동집 콧등치기국수 / 강원도 정선군 정선을 5일장길 37-10 / 033-562-2634
- 황태회관 황태 구이 / 강원도 평창군 대관령면 눈마을길 19 / 033-335-5795
- 부일식당 산채 백반 / 강원도 평창군 진부면 진부중앙로 98 / 033-335-7232

ROOMS

- 알펜시아 강원도 평창군 대관령면 솔봉로 325 / 033-339-0000
- 강과소나무펜션 강원도 정선군 북평면 줄드루길 31-57 / 010-3757-1147
- 하이밸리호텔 강원도 정선군 고한읍 고한로 28-1 / 033-592-2003



전문병원 알아보기



Q. 전문병원과 ‘성형 전문’, ‘피부 전문’ 등 각종 전문 진료를 보는 기관과 어떤 차이가 있나요?

A. 전문병원은 특정 진료 과목이나 특정 질환에 대해 우수하고 안전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을 대상으로 의료 질 등 엄격한 평가를 통해 보건복지부에서 지정하고 있습니다. 지정 분야로는 의과 17분야, 한방 3분야로 총 20분야가 있습니다.

<전문병원 지정 분야별 현황>

지정 분야	의과(17)	한방(3)
질환	관절, 뇌혈관, 대장항문, 수지접합, 심장, 알코올, 유방, 척추, 화상, 주산기(모자)	한방중풍 한방척추
진료 과목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신경과, 안과, 외과, 이비인후과, 재활의학과	한방부인과

Q. 보건복지부가 지정한 전문병원은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요?

A. 전문병원은 별도의 마크를 사용하여 광고하고 있으니, 마크로 확인이 가능하며, 병원 명단은 심평원 홈페이지에서 간편하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전문병원 마크>



<전문병원 명단 확인 방법>

- 심평원 홈페이지 > 병원·약국 > 병원·약국 찾기
- > 세부 조건별 찾기 > 병원 규모별_전문병원



건강기능식품의 기능성, 어디까지 믿어야 하나?

건강 관련 TV 프로그램에는 흥미로운 패턴이 있다. 아픈 사람이 나오고 병원에서 진단받는 장면과 병에 대한 소개가 뒤따른다. 그 다음 그가 먹는 음식이 소개된다. 음식 속 어떤 성분이 어디에 좋다는 이야기와 주인공의 간증이 뒤를 잇고 병이 호전된다는 흐릿한 해피엔딩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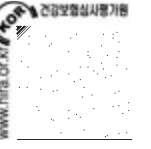
그런데 어디에 뭐가 좋다는 내용을 따져보면 대부분 항산화 효과나 면역력 증강 효과 같은 것이다. 간단히 말하면 항산화 효과란 ‘활성산소’의 작용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다는 뜻이다. 활성산소라는 단어는 학계에서 ‘반응성 산소종’ 또는 ‘반응성 산소화합물’이라고 부른다. 이 반응성 산소종은 몸속에서 만들어지는데 다른 물질과 반응이 잘 일어나 DNA나 단백질의 정상적인 기능을 억제하는 유해한 물질이다. 많은 학자가 반응성 산소종의 작용을 억제하면 노화를 예방하고 DNA 돌연변이를 막아 암 발생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그렇다면 항산화 활성 기능을 나타내는 성분이 함유된 식품은 얼마나 될까? 사실, 항산화 활성 기능이 없는 식품을 찾기가 더 어렵다. 항산화 효과가 꼭 좋은 것도 아니다. 최근엔 지나친 항산화제의 섭취가 오히려 건강에 나쁘다는 주장도 있다. 때로는 반응성 산소종이 몸 안에 침투한 균이나 바이러스를 퇴치하기도 하고 독성 물질을 약화시키기도 한다. 그러니까

적당한 양의 반응성 산소종은 우리의 생존에 필요하다. 항산화 효과와 더불어 많이 쓰이는 면역력 증강 효과도 애매하다. 면역력의 증강을 정량적으로 이야기하기도 어렵다. 보통 ‘면역력 증강’은 면역에 관여하는 백혈구 세포들의 증가, 면역세포가 분비하는 단백질인 인터페론이나 인터류킨 같은 사이토카인의 활성 증가, 항체인 이뮤노글로불린 등의 증가, 자연살해세포(NK세포) 활성 증가 등을 뜻한다. 그렇지만 나쁜 병균이 외부에서 침입해도 이런 활성들은 증가된다. 또한 사이토카인의 증가가 무조건 좋은 것도 아니다.

한편 면역력을 높여준다는 음식들은 항산화 작용을 한다는 음식들과 대동소이하다. 사실 식사만 제대로 해도 면역력은 올라간다. 아울러 충분한 휴식과 잠, 그리고 스트레스 없는 생활 역시 면역력 증강의 한 요인이다. 어떤 음식이 면역력을 높여준다거나 항산화 활성이 있다는 것은 정도 차이에 불과하며 양과 질을 따져봐야 하는 문제이지, 몇몇 식품의 특별한 능력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게으른 ‘나’에서 부지런한 ‘나’로!

우리는 어릴 때부터 부지런해야 한다고 주입받는다. 『아기돼지 삼 형제』, 『개미와 베짚이』 같은 동화부터 그렇다. 물론 부지런한 것은 중요하다. 하지만 사회는 게으름을 마치 죄처럼 취급하며 부지런히 살라고 끝없이 잔소리한다. 여기서 알아둘 것은 게으름의 상당 부분은 의지로 극복될 수 없다는 점이다.

일을 미루면 주변에서 볼 때는 원인이 어땠든 게으르다고 여긴다. 하지만 당사자 입장에서는 이유가 있다. 우선, 하기 싫은 일일 때가 있다. 하기 싫은 일을 열심히 하는 경우란 드물다. 성격에 맞지 않아, 탄전을 피우느라 제때 끝내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화나서 게으름을 피울 때도 있다. 불안해서 일이 손에 잡히지 않는 사람도 있다. 실재는 게으르지 않는데 직장 상사가 게으르다고 비난하는 경우, 사실은 부지런함에도 본인은 게으르다고 착각한다. 자신이 정한 기준이 너무 높을 때는 필요한 휴식을 게으름으로 착각하기도 한다. 따라서 게으름에서 벗어나려면 첫째, 자신이 좋아하는 일을 하자. 둘째, 성향에 맞는 일을 하자. 셋째, 감정 문제를 해결하자. 넷째, 게으름과 휴식을 착각하지 말자.

자신이 좋아하는 일을 하자

누군가 한 달에 200만 원의 소득이 생기는 일을 한다. 그런데 좋아하는 일이 아니어서 그만두고 한 달에 150만 원을 받더라도 좋아하는 일을 하겠다고 하면 주변에서 말린다. 하지만 그 사람은 현재의 일을 계속하더라도 대충 하게 된다. 노력해도 싫어하는 일은 열심히 하기 어렵다. 좋아하지 않는 일을 생활수단으로 억지로 한다면 목표치를 낮추고 삶과 일의 균형을 맞춰, 적당한 선에서 할 필요가 있다. 그렇지만 수입과 연관된 일이 아니더라도 무언가 좋아하며 열심히 하는 것이 하나쯤

은 있어야 살맛이 난다. 좋아하는 것 하나쯤은 열심히 하자.

성향에 맞춰 일하자

집중력은 일정 부분 타고난다. 10분만 일해도 집중력이 흐려지는 사람이 있고 1시간이 넘게 유지하는 사람도 있다. 10분만 일해도 한눈파는 사람이 억지로 1시간을 버티며 일해도 진척되는 것이 별로 없다. 이런 사람은 가만히 앉아서 하는 일보다 몸을 움직이거나 돌아다니며 하는 일을 선택하는 편이 좋다. 그래야 덜 게을러진다. 누군가는 일한 성과가 당장 눈에 보여야 한다. 이런 사람이 몇 달간 노력해야 성과가 보이는 일을 하면 실패할 확률이 높고 게을러지게 마련이다. 따라서 성향에 맞게 단기간에 성과를 볼 수 있는 일을 하는 편이 좋다. 현실적으로 어렵다면 목표를 세분화하고 단기적으로 성과를 확인하자.

감정 문제를 해결하자

게으름과 밀접한 감정은 분노와 불만이다. 싫어하는 상사가 일을 시킬 때, 맞설 수도 없고 직장을 그만둘 수도 없다. 일단 하겠다고 대답한 뒤 탄전을 피운다. 일을 빨리 끝내면 다른 일을 또 시키므로 마감이 임박할 때까지 일을 미룬다. 이런 성향을 수동 공격적 성격이라고 한다. 결국 일을 제때 끝내지 못하고 그 결과 상사가 꾸중하면 분노가 더욱 심해



“ 게으름에서 벗어나려면 첫째, 자신이 좋아하는 일을 하자 둘째, 성향에 맞는 일을 하자 셋째, 감정 문제를 해결하자 넷째, 게으름과 휴식을 착각하지 말자 ”

진다. 이럴 때는 마음속 분노를 해결해야 게으름도 해결된다. 불안 역시 문제다. 심리적으로 불안하면 일에 집중할 수 없다. 평소 집중력이 100인 사람이 심한 불안에 사로잡히면 10 이하로 떨어지는 경우가 허다하다. 안 그러던 사람이 일에 집중하지 못하고 탄전을 피우기도 한다. 그래서 안 된다고 생각하지만 일이 손에 잡히지 않고 초조하니 다른 무언가를 한다. 술을 마시기도 한다. 나아가 불안해서 불면증까지 나타나면 상황은 더 심각해진다. 이때는 불안을 일으키는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거나 치료받아야 한다.

게으름과 휴식을 착각하지 말자

한 중소기업 사무실. 사장이 보기에 직원 몇 명은 항상 게으르다. 하지만 직원 입장에서는 자신이 받는 급여에 딱 맞는 노동을 하고 있다. 한편 쉬지 않고 일할 수도 없다. 사람마다 휴식이 필요한 정도가 다르다. 어떤 사람은 50분 일하면 10분을 쉬어야 하고, 누군가는 반나절을 휴식 없이 일하기도

한다. 이와 별도로 어떤 사람은 자신을 엄격한 기준으로 평가한다. 남들이 보기에는 무척 많은 일을 하고 있음에도 자신을 게으르다고 여긴다. 최소한의 휴식을 취하면서도 ‘나는 너무 게을러’라고 자책한다. 이런 경우는 더 부지런해지려고 노력하는 대신 자신이 게으르다는 생각을 버려야 한다.

맺음말

마라톤 풀코스를 달리는 데는 여러 방법이 있다. 우선 선수들처럼 한 번에 42.195km를 뛸 수 있다. 하지만 타고난 체력과 연습 없이는 일반인에게 무척 어렵다. 또 다른 방법은 1km씩 나눠서 여러 번 뛰는 것이다. 많은 사람이 가능한 방법이다. 1km를 뛰고 10분을 쉬든 1시간을 쉬든 또다시 1km를 뛰면 된다. 뛰는 것이 힘들면 걸어도 된다. 결국 42.195km를 완주하게 된다. 게을러도 상관없다. 포기하지만 않으면 되는 것이다.

HIRA News



송재동 개발상임이사 취임(9.18.)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9월 18일, 본원 2층 대강당에서 송재동 개발상임이사 취임식을 가졌다. 신임 송재동 이사는 급여기준실 등 9개 부서를 관장하는 개발상임이사로서 2년간 업무를 수행한다. 송 이사는 1986년 심사평가원에 입사하여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장, 부산지원장, 기획조정실장 등을 역임했다.



제2회 정보보호 도전 골든벨 개최(9.19.)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9월 19일, 본원 실내체육관에서 '제2회 HIRA 정보보호 도전 골든벨' 행사를 진행했다. 이번 행사는 각 부서 대표직원 총 100명이 참여해 정보보호 기본수칙, 개인정보보호 등의 내용으로 열린 퀴즈 경쟁으로 진행됐다. 전 국민의 진료 정보 등 심평원이 관리하는 개인정보를 철저히 보호하고, 고도화·지능화되는 사이버 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전 임직원의 정보보호 인식과 실천이 중요하다는 공감대 속에서 직원들이 적극 참여했다.



세계 표준의 날, 대통령 표창 수상(10.11.)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10월 11일, '세계 표준의 날' 기념식에서 대통령 표창을 수상했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이 주최하고 한국표준협회가 주관한 이날 기념식에서 심평원은 한국형 환자 분류 체계 개발, 진료비용 공개, 의약품 표준코드 부여 및 관리, 정보시스템 표준화를 위한 국제표준(ISO 20000)인증 등 국가경쟁력 강화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2018 국정감사 수감(10.19.)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10월 19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2018년도 국정감사'를 수감했다. 지난 7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구성 개편 이후 처음 열리는 이날 국정감사는 이명수 위원장의 감사 선언, 김승택 원장의 업무 보고와 위원별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됐다. 심평원은 이날 국정감사에서 심사평가체계 개편,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 등 주요 업무 내용에 대해 수감했다.



국제 심포지엄 개최(10.24.)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10월 24일, '신의료기술·약제의 가격 설정 및 효율적 건강보험지출관리 방안'을 주제로 '2018년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제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올해 심포지엄은 필리핀 건강보험청 등 아세안 회원국을 포함한 10개국 6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재정관리 측면의 지속 가능한 건강보험 시스템 운영 전략' 등 3개 주제에 대한 발표와 토론으로 진행됐다. 심평원은 2007년부터 매년 보건의료지출관리의 주요 이슈에 대한 국내외 관련 기관, 학계 및 산업계 전문가들의 지식과 의견을 공유하는 국제 행사를 개최하고 있다.



2018 WHO-FIC 연례회의 참가(10.26.)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10월 26일, '2018 WHO-FIC 네트워크 연례회의'에 참가했다. 심평원은 이날 '한국 건강보험분류체계와 WHO-FIC 활용'을 주제로 발표하여 외국 보건의료 전문가들로부터 호평을 받았다. 이번 회의에는 전 세계 60여 개국 정부의 보건 관계자와 국내 보건 분류 전문가 등 400여 명이 참가했다.

HIRA News

2018 November+December 11/12 Vol. 167



원주 국제 걷기대회 현장 홍보(10.27.~28.)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10월 27일과 28일 이틀간 원주 따뚜공연장에서 열린 '제24회 원주국제걷기대회'에 참가해 지역사회와의 원활한 소통 활동을 이어갔다. 이날 심평원은 대회장에 홍보부스를 마련하고 병원 평가 정보, 내가 먹는 약 한눈에 등 유익한 서비스를 소개하는 한편 선물 이벤트도 진행했다.



보건의료자원 신고 지자체 워크숍 개최(10.30.~11.8.)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10월 30일부터 11월 8일까지 체계적 의료자원 관리를 위한 업무연계 방안을 주제로 보건의료자원 신고 지자체 워크숍을 개최했다. 워크숍은 6개 권역별로 구분하여 실시했으며, 지자체와 심평원 간 기준 표준화 등 업무 통일성 제고 방안에 대해 논의하고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한 의견을 수렴했다.



2018년 글로벌 스탠더드 경영대상 「명예의 전당」 수상(10.31.)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10월 31일 그랜드 힐튼 서울 컨벤션 호텔에서 개최된 2018년 '글로벌스탠더드 경영대상'에서 품질경영 부문 대상인 「명예의 전당」을 수상했다. 한국 경영인증원이 주관하는 글로벌스탠더드 경영대상은 경영 테마 영역별로 지속 가능 경영시스템과 수행 실적이 탁월한 조직을 발굴하여 시상하는 것으로, 심평원은 국민 건강과 의료 질 향상,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의 성공적 수행을 위해 매진한 공로를 높게 평가 받았다.



1사 1촌 김장 김치 나눔 행사 개최(11.2.)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11월 2일, 1사 1촌 자매결연을 맺은 원주시 신림면 삼송마을에서 취약계층 월동 지원을 위한 김장 김치 나눔 행사를 실시했다. 이날 행사에는 원주시 사회 복지협의회, 심평원 노동조합 및 심평원 봉사단 등 40여 명이 참석했다. 심평원 봉사단은 직접 수확한 배추 1,600포기를 원주시 사회복지협의회에 기증했으며, 기증한 배추는 원주시 기초푸드뱅크와 푸드마켓을 통해 원주지역 소외계층에 전달할 예정이다. 심평원은 2011년 삼송마을과 협약을 맺은 이래 매년 김장 김치를 전달하는 사회공헌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한마음 야구대회 개최(11.3.)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11월 3일, 원주 태장체육단지 야구장에서 제7회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배 한마음 야구대회를 개최했다. 이번 야구대회에는 서울성모병원, 도로교통공단 등 8개 기관이 참가하여 선수, 가족 등 500여 명이 화합과 친목을 다졌다. 심평원은 이번 야구대회에서 원주 지역 저소득층의 의료비 지원 행사, 경품 추첨 행사 등 다양한 프로그램도 함께 진행했다.



보건의료빅데이터 미래포럼 개최(11.5.)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11월 5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보건의료빅데이터 분석의 새로운 방향'을 주제로 보건의료빅데이터 미래포럼을 개최했다. 국내 공공기관·학계 등에서 관계자 200여 명이 참여한 이날 포럼은 심평원 청구데이터의 공동데이터 모델 변환·분석 사례 등 3개의 주제에 대해 장동경 교수(삼성서울병원 소화기내과)가 좌장을 맡아 사례발표 및 토론을 벌였다.



LETTER
독자의 편지

비만에 대한 기사가 굉장히 유익했습니다. 뚱뚱하다고 무조건 살을 빼기보다는 자신의 건강 상태에 맞게 치료를 병행하며 적절한 체중 감량을 해야 한다는 점, 다이어트를 할 때 유의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부산광역시 사하구 김혜선 님

수화 통역사 인터뷰 내용이 인상 깊었습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애쓰시는 의료인들의 이야기를 접할 때마다 큰 감동을 느낍니다. 앞으로도 환자의 마음을 깊이 헤아리는 의료 종사자들과의 만남이 지속되길 기대합니다.

울산광역시 중구 김성아 님

진료 상식 정보 '편안한 호흡을 위하여!' 코너를 주의 깊게 읽었습니다. 얼마 전부터 수척해지시는 부모님께서 숨이 차고 입맛이 없다고 자주 말씀하셨는데, 병원에 가서 폐기능검사를 받아봐야겠습니다.

강원도 동해시 강은경 님



CONGRATULATION
당첨을 축하합니다

2018년도 9·10월호 독자엽서 당첨자

강은경, 김성아, 김예리, 김지효, 김현빈, 김혜선, 김화진, 나연심, 나영우, 박소현, 변혜옥, 서명수, 서정은, 송지영, 신단비, 신범수, 안은정, 유혜빈, 윤원만, 이경숙, 이경화, 이금주, 이정이, 이종민, 이혜영, 임수은, 정혜승, 조미경, 홍경석, 황제연

좋은 의견과 함께 퀴즈 정답을 맞힌 독자분들에게 도서상품권 등 소정의 상품을 보내드립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REQUEST
구독신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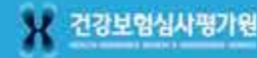
건강을 가꾸는 사람들 구독신청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건강을 가꾸는 사람들』 구독은 웹진(hirasabo.or.kr) 접속 후 구독 신청 메뉴를 통해 신청 가능합니다.

『건강을 가꾸는 사람들』은 한정된 부수만 발간하며, 웹진(hirasabo.or.kr)으로도 보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심평원 이야기 Mobile & PC로 만나보세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SNS 채널 안내



01 네이버 블로그

심평원은 어떤 일을 할까?
내게 필요한 건강정보는?

심평원의 다양한 업무와 유익한 건강정보를 알기 쉽게 전달합니다.

02 카카오톡 스토리

우리 아이 교정치료 언제 시작할까?
봄나들이 추천 여행지는?

엄마 아빠에게 꼭 필요한 육아정보와 다채로운 문화소식을 공유합니다.

03 네이버 포스트

일상생활 속 건강관리 방법은?
중장년 필수 건강상식은?

차별화된 시리즈 기획으로 맞춤형 건강 콘텐츠를 제공합니다.

06 유튜브

심평원 TV CF, 분류체계 교육 영상, 의약품 안전사용 서비스 안내...

심평원에서 제작한 다양한 영상을 한눈에 만나볼 수 있습니다.

05 페이스북

이 증상은 도대체 무엇? #이세먼지_사라져줄래

심평원 소식과 각종 건강정보가 담긴 재미있는 콘텐츠를 소개합니다.

04 건강나래

만들어진 건강 보건 의료기사가 어디서 확인할까?

심평원 빅데이터를 활용한 질병 뉴스와 전문가 집현으로 구성된 건강 매거진입니다.



좋아요 구독하기 누르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SNS 채널 친구가 되어주세요!

독자 설문조사

2018 11+12 Vol. 167

독자님의 성별과 나이는? ① 남() ② 여() / 나이 (세)

독자님의 연락처를 적어주세요. 연락처()

독자님의 근무처는? ① 요양기관(의사□, 한의사□, 약사□, 간호사□, 사무□, 기타□) ② 의약단체 ③ 일반 회사원, 주부 및 학생 ④ 연구 및 학계 ⑤ 기타()

간행물 주요 내용 중 가장 관심 있게 읽은 콘텐츠는?(택 1)

① Theme Report ② 심사·평가정보 ③ 만나고 싶었어요

④ 발길 가는 그곳 ⑤ 기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업무 내용 이해에 있어 간행물 <건강을 가꾸는 사람들>이 도움이 되셨나요?

① 많이 도움된다 ② 도움된다 ③ 보통 ④ 불만족(사유:)

간행물 <건강을 가꾸는 사람들>에 대한 개선 사항(전하고 싶은 이야기)을 남겨주세요.

이용자는 해당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에 대한 거부 권리가 있습니다.

1. 개인정보의 수집 이용목적: 독자엽서 당첨자 상품권 발송, 독자설문 조사 등 서비스 제공에 관련된 목적으로 개인정보 수집

2. 수집·이용 개인정보 항목: 이름, 주소, 전화번호

3.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 기간: 동의일로부터 2년

*상기 내용을 읽고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PUZZLE

		1B		C		
2A						
		3	D			

가로열쇠

- 진료비 청구오류 점검서비스란 ○○○○에서 진료비를 청구하기 전에 청구서·명세서의 필수 기재사항을 점검하고 누락·착오 등의 청구오류를 수정·보완하여 정확하게 청구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서비스이다. (18쪽 참고)
- 일반적인 ○○○과 달리 결핵은 개인위생 상태와 상관없다. (7쪽 참고)
- 결핵균에 감염되어 소수의 살아있는 균이 체내에 존재하나 임상적으로 결핵 증상이 없고 균이 외부로 배출되지 않아 타인에게 전파되지 않으며, 흉부 X선 검사에서 정상인 경우를 ○○○○감염으로 정의한다. (9쪽 참고)

세로열쇠

- 은 특정 진료 과목이나 특정 질환에 대해 우수하고 안전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을 대상으로 의료 질 등 엄격한 평가를 통해 보건복지부에서 지정하고 있다. (52쪽 참고)
- 입원급여 적정성 평가는 요양병원 입원수가 신설로 인한 의료 서비스의 과소 제공을 방지하고 요양병원 전반의 구조적인 인프라를 적정 수준으로 견인하고자 2008년부터 도입되었다. (20쪽 참고)
- 결핵은 ○○과 가래 등 감기와 유사한 증상을 동반하기 때문에 감기로 오인하여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해 증상이 심각해지는 경우가 많다. (7쪽 참고)
- 결핵은 결핵균 ○○○에 속하는 세균에 의해 발생한다. (7쪽 참고)

「건강을 가꾸는 사람들」을 받아보시는 분들 중 주소변경, 구독취소 등을 원하시는 경우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엽서 회신 또는 전화 033-739-0331)

우 편 엽 서

보내는 사람

이름 _____

주소 _____

□ □ □ □ □ □

우편요금
수취인 후납부담
발송유효기간
2016.1.15~무기한
원주우체국 승인
40128

받는 사람  건강보험심사평가원
HEALTH INSURANCE REVIEW & ASSESSMENT SERVICE

강원도 원주시 혁신로 60(반곡동,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고객홍보실 홍보부 <건강을 가꾸는 사람들> 담당자

2 6 4 6 5

